

戰史를 통해 본 心理戰의 特徵과 敎訓

金 種 淑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序 論
2. 心理戰의 本質과 戰略的 運用
3. 心理戰의 戰術的 運用實態
4. 時代別 心理戰의 特徵과 敎訓
5. 結 論

1. 序 論

孫子は 兵法의 『謀攻』篇에서 “不戰而 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不戰勝 사상을 강조하였다. 즉 “백번 싸워 백번 勝利하는 것이 결코 最上의 方法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屈服시키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적의 戰爭意圖 자체를 粉碎하고, 나아가 戰鬪意志를 抹殺시켜 싸우지 않고 적을 屈服시키는 方法을 講究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人間의 마음을 非暴力的인 手段으로 變化시키는 戰爭概念에서 보면, 孫子는 이미 紀元前 400년에 이미 그의 戰爭思想에서 現代의 意味의 心理戰略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孫子が 이미 지적했듯이 心理戰이란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작은 葛藤狀況으로부터 戰爭에 이르기까지 文明의 發達에 따라 發展을 거듭해온 것이다.

古代・中世시대의 심리전은 自然의 現象을 이용하였거나 지휘관들이 本能的인 知慧를 발휘하여 軍과 국민들의 사기를 좌우하였다. 第1, 2次 世界大戰시 心理戰은 政治戰(Political Warfare), 宣傳戰(Propaganda Warfare) 등과, 전투의 한 분야로 欺瞞作戰(Deception Operation)이 수행되었다.¹⁾ 6・25전쟁시에는 共產主義와 民主主義 이데올로기가 대립한 理念戰爭²⁾으로 유엔군은 2次 世界大戰에서 얻은 敎訓을 바탕으로 UN군의 심리전 방송인 VUNC와 라디오방송, 傳單撒布 등 組織的인 心理戰 활동을 전개하였고, 共產陣營은 새로이 등장하는 매스미디어를 效果的으로 활용하여 組織的인 심리전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의 걸프전에서는 國際舞臺에서의 說得手段, 자국민에 대한 輿論造成手段, 전쟁에서의 軍事保護手段 등으로 이용되었다. 가장 최근의 코소보전쟁에서는 古代로부터 걸프전까지 망라된 모든 수단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심리전이 수행되었고, 특히 디지털시대의 총아인 Cyber전 성격의 인터넷전으로까지 발전하였다.³⁾

이와 같이 心理戰의 歷史는 인간이 集團을 이루고 살았던 아득히 먼 人

1) 欺瞞作戰은 모형을 이용하여 敵을 속이는 직접적 방법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간접방법이 있다. 欺瞞戰術에는 실제공격의 모든 징후를 나타내는 방법이 동원된다. 적에 대한 아군의 대응행동을 실제인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한 지역에서 威脅을 유발시킴으로써 그곳의 防禦를 틈튼히 하도록 강요하여 진짜攻擊이 있게 되는 다른 곳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Charles Cruickshank, 「欺瞞作戰(Deception Operation) in WWII」,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譯, 동원문화사, 1987. 12. 5, p. 1).

2) 理念戰爭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흔히 나폴레옹 戰爭時期였다고 한다. 즉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쟁을 正當化하고 상대방 국민들의 지지를 獲得하기 위하여 民主主義와 自由主義 政治理念을 표방하는 理念戰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폴레옹은 최초의 체계적인 心理戰 수행자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장을병, 「정치 커뮤니케이션」, 서울: 태양출판사, 1979, p. 135).

3) 沈珍燮, 「코소보 事態와 心理戰」, 『國防心理戰 政策研究書 第3集』, 1999. 12. 30, p. 61.

類 歷史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각 시대의 戰爭 중에 戰場의 環境여건에 따라 다양한 樣相과 特徵을 갖고 수행되어 왔다.

心理戰의 歷史를 特徵지을 때, 흔히 第1·2次 世界大戰을 起點으로 구분한다. 兩次大戰 以前에는 本能的, 直感的인 심리전으로, 전시에 전투의 한 방법으로만 국한시켜 적에 대한 宣傳攻勢에 의하여 敵側의 병사 및 주민들의 정신과 의지에 타격을 가한다는 狹義의 활동에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以後에는 意圖的, 綜合的, 抑止的인 심리전으로서 外交戰, 政治戰, 經濟戰, 思想戰 등 인간의 심리상태와 관련되는 일체의 분야를 포함시킨 廣義의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實情이다.⁴⁾ 따라서, 과거의 전쟁에서는 단순히 敵軍이나 我軍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국한된 補助手段에서 現代戰에서는 뉴미디어 매체를 총동원하여 전쟁상대국뿐만 아니라 自國國民의 여론이나 동맹국 및 제3국의 태도와 행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확대되어 전쟁의 主 手段으로 등장한 것이다.

예컨대 우주시대가 개막되고, 情報化時代에 돌입한 현대전에 있어서의 심리전 양상은 科學技術의 革命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心理戰은 인류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近世의 專門化過程을 통하여 비로소 獨立된 課題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심리전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해온 심리전의 戰史的인 考察을 통해 그 속에 살아있는 敎訓을 도출해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본다.

특히 戰爭史에서 遂行되었던 심리전은 승리했거나 실패했거나 관계없이 現代戰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古代 東洋史에서 한신의 피리 심리전은 20세기 戰爭이었던 6·25戰爭에서 中國軍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피리 심리전으로 韓國軍 및 유엔軍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中世紀에 칭기즈칸(Chingiz Khan)이 수행한 威壓的인 심리전은 코소보전에서 나

4) 高準鳳, 「心理戰略 試論」(서울: 고려서적 주식회사, 1982), p. 22.

토군에 의해서 유고를 상대로 실시되었다. 이는 '그라나다전', '걸프전'의 성공요인을 적용한 것으로 나토군의 거대한 힘으로 밀어 붙여 강력한 報服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⁵⁾ 걸프전에서 美軍이 보여준 報道心理戰⁶⁾은 軍과 言論의 幻想의인 조화에 의해 勝利한 심리전으로 이것 또한 과거 越南戰의 패배에서 얻은 敎訓으로 가능했다고 評價되고 있다.⁷⁾ 또한 戰史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나 軍 指揮官들은 슬기로운 知慧를 발휘하여 훌륭한 심리전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이와 같이 戰爭史를 통해 얻은 敎訓을 우리 軍의 現代와 未來 心理戰에 활용함은 물론 對應策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心理戰의 本質과 戰術的 運用에 대하여 살펴보고, 心理戰의 主體⁸⁾가 遂行한 時代別 特徵을 分析하여 敎訓을 導出하고자 한다.

5) 沈珍燮, 「코소보 事態와 心理戰」, p. 63.

6) 心理戰(宣傳)과 報道는 원래 그 적용 方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심리전(선전)은 敵國, 中立國, 우방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보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이 두 가지 機能이 하나의 機關에 統合되어 運用되고 있다. 베트남전에서는 두 기능을 統合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이며, 걸프전과 코소보전은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성공한 경우다.

6·25戰爭 이전까지는 심리전이 軍事作戰의 보조수단으로 軍事心理戰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現代戰에서는 매스미디어의 혁신적인 발달로 國家的인 차원에서 뉴미디어 中心의 報道心理戰 양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7) Westmoreland 著, 「越南은 왜 敗北하였는가-野戰司令官의 報告書」(서울: 광명출판사, 1976), 최중기 譯, p. 496.

8) 本 論文에서 心理戰 主體의 意味는 근대이전의 戰爭史에서는 전쟁을 主導的으로 이끄는 指導者나 支配者를 指稱하며, 근대이후에는 戰爭을 遂行하는 國家機關 또는 軍指揮官을 말한다.

2. 心理戰의 本質과 戰略의 運用

(1) 心理戰의 本質

心理戰이란 用語는 1920년 영국의 軍事 評論家이며 歷史家인 풀러(J. F. C. Fuller)가 “영국과 독일의 戰車戰”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未來의 戰爭은 무기와 戰場이 필요 없는 心理戰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⁹⁾

그러나 군사관련 연구자들도 평시에는 對敵 心理戰 활동에 戰爭(war 또는 warfare)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왔다.

이러한 의도에서 심리전보다는 ‘心理戰略(psychological strategy)’ 또는 ‘心理活動’, ‘心理作戰(psychological operation)’ 등의 용어 사용을 선호하거나 혼용하고 있다. 공산권에서는 심리전이 ‘宣傳煽動(propaganda and agitation)’으로 통용되는 등 시대·국가·活用者에 따라 심리전 용어는 相異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定義와 概念 역시 혼란스러울 정도로 多樣性を 띠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심리전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심리전의 目的, 對象, 手段, 活用範圍가 국가와 정책을 다루는 사람과 시대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이다. 第2次 世界大戰 직후 1949년에 작성된 聯合軍 最高司令

9) William E. Daugherty, “Psychological Warfa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8), p. 24.

10) 心理戰을 통속적 意味로 사용한 용어를 보면 “政治戰, 外交戰略, 理念의 싸움, 知慧의 싸움, 眞實의 싸움, 기구의 전략, 마음의 싸움, 思想戰, 세뇌, 神經戰, 후방의 싸움, 간접침략” 등 20여 개가 된다(岩島久夫, 「心理戰爭」, 東京: 講談社, 1968, p. 29).

部 作戰覺書(제8호)의 心理戰憲章에 보면 심리전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心理戰이란, 心理作戰(Psychological Operation)을 의미하며¹¹⁾ 인간의 意識과 情緒行爲를 연구하는 行動科學(Behavioral Science)인 心理學을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軍事科學(Military Science)에서 이를 도입하여 體系化한 전쟁의 한 분야다.” 이는 “적의 抵抗意志를 파괴하고, 적의 사기를 무너뜨려 우리를 支持하는 者의 士氣를 昂揚시켜, 戰爭目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敵 國民(상대자) 또는 中立의인 제3자가 우리측 목적에 입각하여 유리한 태도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우리측에 반하는 태도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면밀하고 計劃的인 노력을 말한다”¹²⁾라고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陸軍本部의 심리전 野戰敎範에는 “軍事 心理戰이란 국가가 軍事的 目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主體側 外의 모든 국가, 집단, 감정, 태도, 행동을 主體側에 유리하게 誘導하는 宣傳 및 기타 모든 活動의 組織的이고 計劃的인 使用이다”¹³⁾라고 정의하고 있다.

심리전에 대한 定義와 概念은 심리전 연구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心理學者 라인버거(Paul M. A. Lineberger)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는 심리전이란 “廣義에 있어서는 政治的, 經濟的 또는 軍事的인 모든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心理學이라는 과학을 이용한 것이며,

11) 心理作戰은 1957년 미 육군성에서 심리전을 Psychological Warfare에서 Psychological Operation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작전이란 술어는 1945년 미 해군 대령 자카리아스(Ellis M. Zacharias)가 일본의 항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작성한 특수작전 계획서에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1951년 트루만 대통령 정부에서는 부처간 전략위원회(Interagency Strategy Committee)를 심리전 협조위원회(Psychological Operation Coordinating Committee)로 개칭 사용하였다. 심리전 술어를 전쟁(Warfare)에서 작전(Operation)으로 변경한 이유는 심리전이 전형적인 전쟁의 형태가 아니며 그 대상이 적에게만 한정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지속적인運用이 필요하므로 전자보다 후자의 概念이 더 적절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2) 聯合軍 最高司令部 作戰覺書 第8號(1949. 3. 11), 心理戰 憲章, 2. 心理戰 定義 參照. 宣東植, 「心理的 戰爭」(서울: 삼진 문화사, 1979), p. 36. 再引用.

13) 陸軍本部, 「心理戰 野戰敎範 33~5」, 1988, p. 8.

狹義로는 對敵宣傳이나 기타 선전을 보완하는 군사적·외교적·정치적인 제반 조치의 이용"이라고 하였다.¹⁴⁾ 자유중국의 王昇 將軍은 "敵을 精神的으로 패배시켜 戰鬪意志와 組織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思想에 基本을 두고 情報에 입각해서 進行시키는 것으로서 적국의 개개인에게 심리적 변화를 惹起시키기 위하여 組織 및 宣傳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집단과 지도층의 심리적인 변화를 의도하는 방향으로 工作活動과 宣傳活動을 하는 政治戰爭法의 總稱이다."라고 했다.¹⁵⁾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심리전이란 전쟁목적을 위해 非暴力手段인 언어를 사용하는 戰爭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심리전이란 "非暴力的 수단인 언어를 이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戰爭"인 것이다.¹⁶⁾ 이러한 관점에서 라인버거는 依義의 또 다른 의미로서 "心理戰이란 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心理的 武器의 補充이다. 그것은 적의 사기를 분쇄하는 새로운 태도를 조성함으로써 작업과 전투에 임하는 적의 의지와 능력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⁷⁾ 따라서 心理戰은 무력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熱戰상황에서도 일어나지만, 武力手段의 이용이 제한되는 冷戰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心理戰은 일반 전쟁과 마찬가지로 戰略的인 것과 戰術的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戰略的 心理戰이란 냉전체제와 같이 무력사용이 억제될 때, 전쟁수행 목적보다는 국가의 外交政策 일환으로 사용되는 心理戰이고, 전술적 심리전이란

14) Linebarger, Paul M. A., "Warfare Psychologically Waged", in Daniel Lerner(ed), *International Propaganda and Communication* (New York : Armo Press, 1972), p. 267.

15) 王昇, 「自由中國의 政治作戰概論」(서울: 國際 弘報社譯, 1967), p. 11.

16)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with Introductory Essays by Peter, Michael Howard and Bernard Brodie : with a Cdmmenyary by Bernard Brodie, Index by Rosalie West, p. 612.

17) Lineberger, Paul M. A., "Warfare Psychologically Waged", in Daniel Lerner(ed), *International Propaganda and Communication* (New York : Armo Press, 1972), p. 269.

무력투쟁시기에 무력투쟁의 보조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심리전을 말한다.

제1차 世界大戰을 전후하여 심리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의 정치적 鬭爭과 戰爭을 통하여 주요 武器가 등장하면서 ‘宣傳(propaganda)’이라는 용어와 ‘煽動(agitation)’, ‘理念戰(war of idea)’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심리전에 대한 定義들은 매우 다양한데, 켈터(Terence H. Qualter)는 보다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심리전의 本質的 特性을 고려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4가지의 特性을 제시하고 있다.¹⁸⁾ 첫째로 心理戰이 다른 활동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本質的 特性의 하나는 ‘組織的 企圖(the deliberate attempt)’이다. 이는 곧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직적, 意圖的 行動을 뜻한다. 둘째로는 다른 집단성원들의 態度를 形成, 統制 또는 變容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이러한 목적의 心理戰은 개개인보다는 集團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심리전은 대상 社會의 基本構造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우선적으로 집단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네번째 本質的 特性은 커뮤니케이션 手段의 使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리전의 概念은 인간의 個人心理라든가 集團心理의 刺戟과 反應關係의 原理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敵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對內관계까지 포함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心理戰의 概念과 定義는 心理戰의 目的, 對象, 手段, 活用範圍가 국가와 政策을 다루는 主體와 時代에 따라서 相異할 것이다. 심리전이 이처럼 相異點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性格은 첫째 軍事的 鬭爭처럼 人命을 殺傷하는 戰爭이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人間心理의 變化를 이용한 虛偽性, 요컨대 欺瞞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眞實된 내용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¹⁹⁾ 물론 고대로부터 6·25전쟁까지도 虛偽와 欺瞞에 의한 心理戰이 일부 수행되기도 했으나

18) Terence H. Qualter, *Propaganda and Psychological Warfare*, 1971, p. 27.

19) 高準鳳, 「心理戰略 試論」(서울: 고려서적 주식회사, 1982), p. 18.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모든 戰況이 실시간에 전세계로 전달되는 現代戰에서는 心理戰 論調의 眞實性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오늘날 심리전은 科學文明의 급속한 발달로 戰場環境이 크게 변화되면서 그 適用範圍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 규모나 樣相도 革新的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컨대 현대전에 있어서 심리전은 國家目標을 효과적으로 達成하기 위해 國家의 基本政策에 根據를 두고 실시해야 하며, 이는 國民的 支持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협상과 타협을 통한 外交的 手段과 大衆媒體를 이용한 宣傳手段, 힘을 바탕으로 하는 政治, 經濟, 軍事的 制裁手段으로 전쟁이라는 최종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國家目標 達成手段과 統合되어 공조하거나 조화를 유지하면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²⁰⁾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심리전에 대한 類似用語의 定義와 심리전의 本質의 特性을 토대로 戰爭史의인 심리전의 敎訓, 현대사회에서의 활용도 측면, 매스미디어의 혁신적 발달, 한반도의 安保狀況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요컨대 心理戰의 概念은 “平時나 戰時를 막론하고, 적과 自國國民 그리고 우방집단에 대하여 國家目標 달성을 위한 國家政策을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態度 및 行動을 자기 측에 有利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計劃的인 政治, 經濟, 社會, 軍事的인 諸 心理的 활동을 總稱한다”고 볼 수 있겠다.²¹⁾ 이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평시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戰爭(Warfare)이라는 용어는 사용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心理戰略’ 또는 ‘心理作戰’도 心理戰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0) 안희준, 「주요 戰爭史에 나타난 心理戰 事例研究」, 『합동참모본부 연구보고서』, 1997, p. 4.

21) 趙永甲, 「韓國 心理戰略論」(서울: 도서출판 팔복원, 1998. 9. 1), p. 29.

(2) 心理戰의 戰略的 運用

전술한 바와 같이 心理戰은 目的, 對象, 手段, 活用範圍가 國家와 政策을 집행하는 主體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에 심리전을 戰略的 측면에서 활용하느냐 단지 軍事的 補助手段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國際 政治의 인차원이나 혹은 國內 輿論形成 차원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다. 그러나 共通된 점은 상대방의 行動方式을 心理戰略으로 主體側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現代에는 心理戰을 國家政策 具現次元에서 戰略的으로 運用되는 方向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²²⁾ 國家政策이나 國家戰略은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政治·經濟·軍事的 역량을 발전시키며 사용하는 科學으로서 國力을 운용하기 위한 長期計劃이다. 과연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國家政策 및 戰略의 手段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클라우제비츠는 政治·外交의 手段과 軍事的 手段의 두 가지 수단을 말하고 있으나, 現代國家의 모든 資源을 國家政策 및 戰略을 위한 手段으로서 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에는 政治的·經濟的·軍事的 그리고 心理的 手段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³⁾ 즉 이것은 國家政策이나 國家戰略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계획하여 國家目標을 달성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면 그것은 각각의 政治戰略, 經濟戰略, 軍事戰略, 그리고 第4戰略으로서 心理戰略이라는 매우 중요한 國家戰略을 더하여 분류할 수 있다. 현대 國家戰略의 體系上에 있어서 第4戰略으로서 心理戰略은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國家政策에 바탕을 둔 계획된 수단이 되어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즉 國家政策 및 國家戰略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政治戰略이 無形的 刺戟으로서 經濟戰은 類型的 刺戟으로써 영향력을 미쳐서 그 결과로 心理戰의 反應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심리전이 자극을 가함으로써 政治·經濟·軍事戰略에서 의도했던 행동반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22) 高準鳳, 「心理戰略試論」, p. 18.

23) 陸軍本部, 「戰略 研究」(서울: 陸軍本部, 1985), p. 85.

것이다. 따라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및 전략의 수단으로서 政治戰略, 經濟戰略, 軍事戰略 그리고 心理戰略은 상호 유기적인 결합 및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心理戰의 戰略 또는 運用機能은 政策實現, 國際關係 改善, 이데올로기 제공, 士氣昂揚, 國民精神 動員, 여론형성, 精神戰力 強化, 지휘통솔의 효율성 제고, 混亂 및 葛藤 조장, 이미지 개선, 적개심 고취, 民軍 關係 증진 등 다양하며, 國家政策 遂行의 戰略的 手段으로서 그 運用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國家 政策實現 手段으로서의 戰略的 運用概念이다. 현대 國際社會에서 국가간의 모든 政治的 競爭 및 紛爭은 外交·宣傳·制裁·戰爭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心理戰은 각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輿論의 造成과 전파 그리고 설득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政治目的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現實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외 政策實現에 있어서 중요한 關心事의 하나는 심리전을 戰略的으로 어떻게 구사하여 상대방의 意見·感情·態度 및 行動을 主體側이 원하는 方向으로 변경 및 轉換시키느냐 하는 점이다.²⁶⁾

둘째, 이데올로기 제공이다. 이데올로기란 인간생활 및 政治·宗教·哲學의 根本問題에 대한 基本的인 信念體系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는 이데올로기가 있기 마련이며, 歷史上에 나타난 위대한 支配者나 指導者들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묶어 놓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實證하고 옹호하는 強制와 說得 노력을 계속해 왔다.

세번째, 國際關係에서 자국의 利益獲得이다. 國際關係에서 心理戰의 目的은 일반적으로 자국을 위한 보다 나은 이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自國國民과 外國 國民들간에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국가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24) 趙永甲, 「韓國 心理戰略論」, p. 187.

25) 高準鳳, 「心理戰略試論」, pp. 110~114.

26) 高準鳳, 「極東政治와 心理戰略에 관한 研究」(서울: 『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76), p. 110.

네번째, 總力態勢確立의 機能이다. 現代戰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國家社會의 전체 역량을 흡수(또는 동원)해야 하는 國家總力戰 개념이다. 따라서 武力이라는 手段에 치중하던 협의의 戰爭概念에서 廣義의 전쟁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 전쟁은 흔히 戰鬪力 = 軍事力 × 非軍事力 × 精神力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²⁷⁾ 한마디로 국가내의 모든 力量이 동원되어야 함을 말하며, 이 중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될 때에는 戰鬪力은 저하 내지 상실되는 것이다. 심리전의 수단으로는 심리적 의미가 높은 정책, 宣言, 主張, 슬로건, 캠페인, 指導者의 말과 태도, 매스컴 조정, 문예활동 등 국민의 感情과 情緒에 자극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다섯째, 輿論形成의 機能이다. 輿論이란 어떤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이해에 관계가 되는 문제에 관하여 가지는 공통적인 意見의 綜合이다.²⁸⁾ 따라서 政治·外交·戰爭·選舉와 같이 被 統治者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輿論은 중요한 戰略的 要素가 된다. 이에 따라 主體者들은 輿論을 形成·管理하면서도 輿論에 순응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心理戰의 戰術的 運用 實態

심리전은 人類와 더불어 오랜 歷史속에서 각 시대의 전쟁환경과 戰爭主體의 능력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樣相으로 수행되었으며, 하나의 獨立된 課題로 인정되어 體系의으로 연구되고 활용되기는 近代以後에 이루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리전이란 용어는 1次 世界大戰의 교훈을 분석하는 과

27) 岩島久夫, 「說得科學」(東京: 潮新書, 1971), p. 45.

28) 趙在權, 「宣傳輿論概說」(서울: 박영사, 1964), p. 166.

정에서 최초로 사용된 단어이다.

그러나 심리전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變遷過程에서 나타나는 樣相과 特徵을 探索하여 敎訓을 도출해내는 연구가 必須的이라고 본다. 심리전의 歷史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理論的인 방법과 각 시대의 歷史를 통하여 심리전 變遷過程을 연구하는 歷史的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²⁹⁾ 이와 같은 見地에서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主要 戰爭에서 表出된 心理戰에 대하여 主體者의 意圖에 따라 遂行된 戰術的 運用實態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1) 古代의 心理戰

古代의 心理戰은 아무런 體系도 없이 經驗을 토대로 한 戰鬥方法의 하나로 傳統的이고 瞬間的인 知慧나 꾀를 써서 敵軍을 속이거나 我軍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고대에 있어서는 出陣할 때 얼굴에 色을 칠한다든지 새의 털로 머리를 裝飾한다든지 高聲을 지른다든지 神託을 받는다든지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위대한 指導者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本能的 또는 經驗的인 第六感에 의존되어 있었다. 古代에 있어서는 이처럼 指導者들의 本能的이거나 經驗에 의한 지혜로 軍 또는 全 住民들의 士氣를 높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례가 많았다. 이것이 古代 心理戰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主要 戰爭에서 表出된 心理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戰術的 運用實態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孫子の 心理戰略

孫子の 兵法 중 제7편 軍爭과 마지막 제13편 用間이 心理戰略에 관계되

29) Paul M Lineberger, 앞의 책, p. 1.

는데, 用間編에서는 주로 間諜活動을 설명하고 있고, 軍爭編에서는 心理戰略을 취급하고 있다.³⁰⁾ 우선 用間編을 보면 “軍爭이란 軍隊를 써서 승리를 얻는 다는 뜻인데 그 내용은 처음에는 ‘迂直之計’를 논한 후 治衆, 治氣, 治心, 治力, 治變 등의 항목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迂直之計’에 관해서는 “軍事之難者, 以迂爲直, 以患爲利, 故 迂其途, 而誘之以利, 後人發, 先人至, 此知迂直之計者也”라 하였다. 이를 解釋하면 “군쟁의 어려움은 우회하는 것으로 중국에는 직행하는 결과를 만들고, 일견 곤란해 보이는 상황을 바꾸어 중국에는 이로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 우회도로를 택하고 이로움을 보여주어 적을 잘못된 곳으로 유인해 냄으로써,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적보다 먼저 유리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니, 이것이 곧 우직지계, 즉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빨리 가는 법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로 풀이된다.³¹⁾ 여기서 中心이 되는 思想은 첫째는 ‘以迂爲直’, 즉 迂로서 直을 삼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以患爲利’, 즉 患으로 利를 삼는다는 의미로 이를 환언하면, “禍를 돌려 福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心理戰略上 注目할 점은 “迂其途, 而誘之以利, 後人發, 先人至”라는 구절인데 이는 敵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놓으면 상대방의 계획에는 破綻이 오기 마련이며, 상대방의 혼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敵 또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心理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迂直之計’의 심리전략은 손자가 各論에서 설명하는 治衆, 治氣, 治心, 治力, 治變이란 5개 항목을 心理戰略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³²⁾

30) 孫子の兵法은 吳子の兵法과 더불어 東洋의 대표적인 병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손자는 紀元前 400년에 中國 戰國時代에 齊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吳王 闔廬의 신하였다고 한다. 그는 着想하는 規模가 크고 날카로운 兵法家로서 그의 兵法은 총13편으로 構成되어 있다.

31) 孫子 著, 김광수 解釋, 「孫子兵法」(서울: 책세상, 1999. 4. 20), p. 219.

32) 盧台俊 譯解, 「孫子兵法」(서울: 弘新文化社, 1974), p. 194.

(高準鳳, 「心理戰略試論」, pp. 27~30. 再引用)

첫째, 治衆 또는 用衆之法은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드는 集團心理를 설명하고 있는데, 勝戰하기 위해서는 이 集團心理를 잘 理解하고 利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治氣는 인간의 마음이란 아침에는 기운이 차있고 낮에는 늘어지고 저녁이 되면 풀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自然的 心理의 움직임에 맞추어 作戰하고 氣勢가 衰했을 때 虛點을 치되, 그것도 자연적인 인간의 心理 動向에 적응해서 하라는 것이다.

셋째, 治心은 我측의 人和와 團結을 가지고 敵의 不和와 無秩序(分裂)에 파고들면 이것이 곧 我측의 마음을 다스려서 敵의 虛를 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心理戰略에 있어서 攪亂作戰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며, 오늘날 國民總和의 가치를 뜻한다고 하겠다.

넷째, 治力은 戰力を 심리전의 요소와 물질적 요소의 결합으로 把握되는데, 持久戰에 있어서 對敵宣傳의 요체를 밝힌 敎訓이라 하겠다.

다섯째, 治變은 변화로서 다스린다는 것으로 敵의 情勢에 따라 戰略戰術을 잘 변화시켜서 對處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심리전에서는 我側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誘導하는데 그 力點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상에서 孫子兵法을 통하여 東洋에 있어서 紀元前 400년에 이미 現代的意義를 가진 孫子の 心理戰略의 형틀이 實在했음을 살펴보았다.

2) 유리시스 將軍의 木馬 心理戰

BC 약 1200년경의 傳說로 그리스군과 트로이(Troy)군 사이에 戰爭이 벌어졌는데 그리스군이 10여년간 트로이의 군을 공격했으나 難攻不落이었다. 이에 그리스의 猛將 유리시스는 오디세우스 장군의 충고를 받아들여 특별한 방법으로 목마의 계락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트로이城을 포기하고 퇴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일부가 인접한 섬 뒤에 숨어서 거대한 木馬를 製作했다. 그들은 그것을 불화의 여신 엘리스에게 膳物로 提供할 것이라고

宣傳했으나, 사실은 그 속에 武裝한 兵士들을 숨겨놓았다. 木馬는 20~50명의 병사를 채울 만큼 거대했다.

그리스 함대 대부분이 떠날 채비를 하는 가운데 목마를 끌고 오자 트로이군 내에서는 그 목마의 처리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호기심의 대상이 된 목마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빨리 城內로 갖고 갈 것을 제의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警戒했다. 레오콘(Laokoon)이라는 신관이 나타나더니 그리스군은 간계에 능하니 목마 속에 있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순간 시논이란 이름의 그리스軍捕虜가 끼어 들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미워해 떨어뜨려 남게 된 자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木馬에 대해 말하기를, 그것은 여신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스軍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것으로서, 거대하게 만든 것은 성내로 운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트로이 城內로 들어가면 트로이 군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트로이軍은 木馬를 성내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하고 일정한 의식을 밟았다. 온종일 잔치가 계속되고 노래와 환호 속에 의식이 치러졌다. 이윽고 밤이 되자 목마 속의 그리스 병사들은 間諜 시논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오고, 대기하던 우군에게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그리스 군은 성내로 일제히 쳐들어갔다. 그들은 城內에 불을 지르고, 잔치 끝에 쓰러진 트로이 군을 모두 죽이고 트로이를 완전히 征服했다.³³⁾ 이 戰爭에서 木馬에 관한 傳說도 실은 이러한 內通者가 있어 傳說化 한 것으로 믿어지며, 여기서 巨大한 목마를 트로이인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당시에 트로이가 말의 名產地로 트로이인이 말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리스군이 心理戰으로 勝利를 爭取했다는 것에 그 意義가 있는 것으로 본다.

33) 高準鳳, 「心理戰略試論」, pp. 30~31.

3) 한니발 將軍의 對內 心理戰

카르타고의 출신인 한니발(Hannibal, BC 247~183)은 부친과 함께 이스파니아에서 幼年期를 보냈으며 로마에 대한 復讐心을 키우면서 성장하였다. 부친이 사망한 뒤 한니발은 카르타고군의 總 指揮官이 되어 제2차 포에니戰爭(Poeni War, BC 219~202)을 일으켜 6만 精兵을 이끌고 陸路로 갈리아로 출발하여 알프스산을 넘어 北이탈리아로 侵入하여 이탈리아 半島를 13년간이나 征服하고 支配하였다. 그러나 그 후 로마군은 스키피오의 指揮하에 적극적인 공세를 가하였고 드디어 BC 204년에는 카르타고 본국을 침입하였다. 한니발은 급히 귀환하였으나 Zama決戰에서 대패하여 제2차 포에니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이상의 戰史에서 한니발이 어떻게 이탈리아 반도를 征服하고 13년간이나 支配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심리전적 頭腦의 所有者였다는 데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岩島久夫가 著述한 “心理戰爭”에서 그가 成功할 수 있었던 네 가지 要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³⁴⁾

첫째로 면밀한 情報活動과 부하 및 被支配者의 심리를 항시 중시했던 결과로, 情報活動은 사전에 로마攻略을 염두에 두고 로마에 상설 情報 蒐集機關을 설치하여 적의 모든 동정을 入手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부하와 주민에 대한 심리전을 중시하여 本國 政府가 로마에 宣戰布告를 하는 순간, 그는 이 布告 이전에 적에게 일격을 가해 사군툼(Saguntum)을 함락시키고, 戰利品을 본국에 輸送하여 民衆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전쟁에 무관심했던 민중들까지도 戰意와 愛國心을 가지게 하는 대내 심리전을 수행했다.

둘째로 한니발은 指導者로서 指導 能力과 先天的 魅力이 있었다. 그의 부대는 스페인인, 아프리카인, 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언어가 다른 諸 部族인데도 그는 이를 잘 統率했으며, 遠征 중 이러한 混成部隊가 로마군의 습

34) 趙永甲, 「韓國 心理戰略論」(서울: 도서출판 팔복원, 1998. 9. 1), pp. 137~140, 再引用.

격을 받는 등 곤경에 빠졌을 때라도 그들은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기록만 보아도 한니발의 對內 心理戰에 대한 威力를 짐작할 수 있다. 現代 心理戰 遂行上에 있어서 考察해야 할 要點으로는 最高 統率者와 실제 행동하는 인물은 魅力的 素質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原則과 對照할 때, 한니발은 확실히 이런 점에서 先天的 素質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 장군이 알프스산을 넘었던 戰史도 유명하지만, 한니발의 알프스 越境 作戰도 대단한 것이었다. 통로는 험악했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끊임없는 적의 기습으로 대열은 이탈되고 兵士들은 疲勞와 補給難으로 極限狀況에 달했다. 그런 험난한 상황에서도 병사들이 依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니발의 강한 信念과 強忍한 모습이었다. 한니발 遠征軍이 알프스를 넘기 전에 보병 5만, 기병 8천, 코끼리 38두였던 戰力이 越境 후 보병 2만, 기병 6천만이 生存했음을 보아도 그 遠征이 얼마나 險難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부하들이 한니발을 끝까지 따른 것은 그의 魔術的 魅力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그는 行動 決心이 서면 迅速하고 과감한 實行力이 있었다. 로마의 海軍力에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알프스를 넘는 어려움도 불사하고 陸路를 따라 進軍했으며, 론강(Rhone River)을 渡河해야 한다고 判斷되면 敵軍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부근의 모든 배를 집결시켜 수십 두의 코끼리와 대군을 24시간 내에 渡河시켰다. 한니발의 名聲이 戰史에 길이 남게 한 作戰은 적지에서 로마로 진격하는 것처럼 陽動作戰을 개시하여 적의 기세를 꺾고, 부대를 아드리아(Adria) 해안으로 진출시켜 1개월 가량 휴양을 시킴과 동시에 노획한 적 장비와 전리품으로 이례적으로 部隊를 再編成하였던 것이다.

넷째로 그는 戰略的 의미에서 2개의 作戰原則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作戰計劃과 戰爭行動의 柔軟性을 강조한 것이고, 또 하나는 戰爭目標을 軍事的 勝利에만 두지 않고 항상 政治的 效果 達成을 指向했다는 점이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한니발이 로마 都市同盟을 와해시키기

위한 宣傳手段으로서 로마의 同盟者를 해방시킨다는 명목하에 포로들로부터 배상금도 받지 않고 석방하여 귀가시키고, 한니발의 적은 이탈리아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爲政者이며, 오로지 로마가 한니발의 세상으로 變革되면 그들의 옛 領土와 獨立을 回復시켜 준다는 말을 전파시켰다. 그러나 이 테리의 都市同盟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큰 誤算이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이 遂行한 心理戰略만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한편 로마는 한니발이 원정중인 약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後方攪亂策動을 전개함으로써 결국 한니발도 카르타고도 멸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에도 世界各國이 당면한 國內的 要因이 外交政策에 미치는 影響으로 擡頭되는 상황에서는 한니발과 카르타고의 滅亡이 가져다 준 歷史的 敎訓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韓信의 피리 心理作戰

古代 東洋史에도 심리전에 관한 전기가 많으나 그 중에서도 「三國志」에 나오는 諸葛孔明的 出師表(戰爭 宣言文)와 韓信의 피리 作戰은 유명하고, 특히 한신의 피리 심리전은 20세기의 전쟁인 6·25戰爭 때에도 그 망령이 되살아난 듯 中國軍은 이 피리로 당시 참전한 韓國軍 및 유엔군을 많이 괴롭힌 사실이 있으며, 여기서는 한신의 피리 心理戰을 소개키로 한다.³⁵⁾

예컨대 紀元前 232년부터 202년경에 中國의 楚나라 猛將 項羽와 한나라의 지장 韓信 장군이 구리산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한신은 항우의 용감무쌍하고 충성스러운 병사들에게 그들의 故鄉인 강서 鄉愁歌를 피리로 들려줌으로써 그들 8,000명을 戰地에서 풀어지게 하고, 項羽로 하여금 조강에서 自殺하게 하여 전쟁을 종결시켰다.

敎訓을 分析해 볼때 戰場心理를 剷奪하게 利用하여 鄉愁心理戰으로 승리

35) 선동식, 「心理의 戰爭」(서울: 영진문화사, 1979), pp. 53~63.

한 대표적 戰爭史例다. 韓信軍은 첩자를 이용 敵情把握과 奸計에 의한 誘引策으로 적을 埋伏하여 擊滅할 수 있었다. 상기의 心理戰은 遂行媒體인 皮리와 方法으로는 가수 100명이 동원되었고, 특히 시기를 깊어 가는 가을밤으로 선택한 것이 적절하고 주효하였다. 歌詞內容을 보면 現代 心理戰의 핵심인 백색, 회색, 흑색심리전 요소 모두가 가미되었고, 적에게 催眠術이 걸리도록 科學的이고 體系的으로 구성되었다.

본 戰例는 古代의 史例이나 그 方法이나 內容을 깊이 分析하여 보면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파헤쳐 이용한 心理戰術이다. 이 心理戰術은 現代戰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5) 金庾信 將軍의 연 心理戰

金庾信 將軍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名將으로 한국 民族史와 더불어 불멸의 英雄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人物이다. 따라서 金庾信 將軍의 心理戰에 관한 戰史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서기 647년(眞德女王 元年) 新羅 비담염종의 反亂이 있어 김유신 장군이 討伐을 擔當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百姓들은 하늘로부터 큰 별이 경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女王을 폐할 徵兆다. 큰 禍가 미칠 것이다”라고 하여 몹시 두려워하고 人心이 흉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庾信 將軍은 한가지 計略을 세웠다. 그는 한밤중에 남몰래 커다란 연에다 불을 붙여 하늘에 띄웠다. 그리고 지난번에 떨어진 별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宣傳을 하였다. 그러자 인심은 곧 安定되고 兵士들은 士氣衝天하여 이 싸움에서 큰 勝利를 거두었다.³⁶⁾

오늘날 심리전 관점에서 보면 사상 최초의 政治防禦 心理戰으로 評價받을 만 하며, 심리전은 평소 특별한 機智를 가지고 기상천외의 着想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敎訓으로 삼을 수 있다.

36) 趙永甲, 앞의 책, pp. 141~142.

(2) 中世 및 近代戰爭의 心理戰

로마 興亡史 이후에 유럽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中世紀가 되고, 르네상스로부터 宗教改革을 거쳐 비로소 近代國家의 成立과 歷史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2세기에 걸친 7회의 十字軍 戰爭과 잔다크를 낳게한 英·佛의 100년 戰爭, 영국왕실간의 장미전쟁, 신성동맹과 이탈리아의 전쟁, 종교전쟁, 유럽의 전형적인 절대군주간의 싸움인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왕위계승전쟁, 독일 프리드리히 대왕에 얽힌 7년 戰爭, 기타 여러 戰爭이 계속되었다.³⁷⁾ 그러나 近代 心理戰의 特徵이라 할 수 있는 意識的, 計劃的 心理戰의 先驅者的 役割을 遂行한 칭기즈칸,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의 心理戰略의 運用實態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칭기즈칸의 恐怖 心理戰

칭기즈칸(Chingiz Khan)의 몽골軍이 제한된 兵力으로 歷史上 가장 짧은 기간동안 廣闊한 地域을 征服한 것은 몽골民族이 砂漠이라는 惡條件하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는 忍耐力과 사막이 주는 飢渴의 不足與件에서 鍛鍊된 강인한 戰鬥力,³⁸⁾ 신속한 機動力,³⁹⁾ 情報의 効果적인 蒐集과 活用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많은 謀者를 意識的·計劃적으로 利用하여 敵을 恐怖에 빠뜨리는 心理戰을 展開했다고⁴⁰⁾ 볼 수 있다. 칭기즈칸 군대는 중세기를

37) 趙永甲, 앞의 책, p. 142.

38) 몽골軍은 빈틈없는 사람들이고 剛健한 체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일생동안 戰爭과 殺傷만으로 살아왔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죽는 것에 두려움이나 겁이 없었다. 또한 그들은 못 먹는 것이 없었으며, 아무 곳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잔인하고 날세고 용감하고 強靱한 軍隊로서 廣野의 메뚜기 떼와 같았다.

39) 몽골軍은 매일 98km의 機動속도를 유지하며 종횡무진한 征服을 하였다. 戰爭에서 機動速度는 적의 상대적 戰力에 의해 決定되기 때문에 機動速度에 나타난 수치와 軍이 가지고 있는 機動能力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40) 몽골軍의 情報蒐集은 組織의 이고 정확했다. 그들이 정벌할 지역에 대해 數年前부터 謀

대표할 만한 迅速性和 機動性を 갖춘 騎兵을 활용하여⁴¹⁾ 중국과 유럽 도처에서 실재없이 싸웠지만 당시 몽골 세력 앞에는 누구도 적대자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몽골軍에 있어서 적은 병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達成할 수 있는 것이 기병이었으며 몽골군은 作戰을 計劃함에 있어서 諜者를 활용하여 組織的이고 計劃的으로 몽골군의 威力과 勇敢性, 亂暴性을 誇大宣傳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게 하였다. 그들은 적이 不安과 恐怖를 느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았다. 유럽人들은 몽골의 첩자들이 퍼뜨리는 소문으로 몽골 군대가 경쾌하고 잔인스러운 군대이고, 몽골軍이 지나간 곳에는 사람의 種子가 없어진다는 등의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수적으로 열세한 기병을 무수한 부대라고 부르게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적은 애당초 “몽고에 대한 恐怖病”에⁴²⁾ 걸려 싸우기도 전에 겁부터 먹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칭기즈칸은 敵으로 하여금 恐怖에 떨게 하는 수단으로서 적의 첩자까지 逆利用하여 자기네 힘을 誇示하였다. 다음은 코레즈미(Khorezmi) 王의 諜者를 역이용한 예로서, 몽골 군인들은 빈틈 없는 사람들도 모두 强健한 體力과 知慧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일생을 전쟁과 피만으로 살아왔다. 戰爭이 없을 때는 그들의 指揮官은 몽골 군대의 혈기를 억제시키는데 가장 곤란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자기 자신이 죽는 일에

報를 수집하기 위해 遊牧民으로 구성된 諜者를 파견하여 作戰에 필요한 情報을 획득함은 물론 몽골軍에 대한 戰慄과 恐怖心을 조장하는 심리전을 展開하였다. 몽골軍은 “殘忍하고 강력하여 그들에게 저항하면 풀 한포기,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으며, 그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方法은 降服하거나 逃亡하는 길뿐이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戰爭意志를 喪失케 하는 心理作戰을 전개하였다.

- 41) 中世의 騎兵은 步兵集團에 의한 戰鬪形態를 취한 로마군이 AD 378년 아드리아노폴 戰鬪에서 서고트족의 騎兵에게 敗北함으로써 步兵中心의 集團戰術은 사라지고 騎兵이 전쟁 주수단으로 등장하여 968년간의 中世騎兵의 시대를 열었다. 중세의 騎兵은 주로 전투를 하는 것 보다 領主의 威嚴을 誇示하고 영주를 象徵하는 상징물로 養成되고 운영되었다. 기병은 威嚴과 權威를 과시하는 상징으로 騎士(knight)가 出現하게 되었다. 東洋에서는 칭기즈칸에 의한 輕騎兵이 機動과 衝擊으로 유럽의 重騎兵을 擊破하고 유라시아 大陸에 걸친 大帝國을 건설했다.

42) 李圭植 譯, 『칭기즈칸』(서울: 英林社, 1973), p. 286.

조금도 겁이 없으며, 못 먹는 것이 없어서 아무 곳에서나 큰 곤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殘忍하고 날쌔 찡기즈칸 군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대체로 이러한 내용의 심리전의 결과로 당시 유럽인들은 찡기즈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만 들어도 거의 抵抗할 생각을 포기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몽골인들은 卓越한 戰略的 및 戰術的 심리전을 수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결코 宣撫心理戰의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被 征服民族으로부터 眞實된 忠誠心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세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밀바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分裂되어 드디어는 滅亡하고 말았다. 찡기즈칸이 중앙아시아의 코레즈미(Khorezmi) 왕국을 정복하고자 할 때 적의 謀者 살탄(Saltan)을 역이용하여 “찡기즈칸의 生活手段은 戰爭과 피다. 그의 군대가 지나가면 사람의 種子가 남지 않는다”는 등의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했다. 찡기즈칸은 被 征服民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여 결국은 분열되어 大帝國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몽골軍이 제한된 兵力으로 歷史上 가장 넓은 領土를 征服한 것은 그들의 강인한 戰鬥力, 신속한 機動力, 情報의 効果적인 蒐集과 活用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많은 첩자를 意識的·計劃적으로 이용하여 敵을 恐怖에 빠뜨리는 心理戰을 전개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나폴레옹의 戰略 心理戰

나폴레옹(Napoleon, 1769~1821)⁴³⁾은 프랑스 루이 왕조 말기인 國家 危機時에 일어나 革命意氣에 불타는 國民大衆을 이끌고 당시 世界大勢를 左之右之하는 英國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聯合軍을 꺾고 善戰한 그의 功績은

43) 나폴레옹은 25세의 청년 때부터 47세까지 22년간에 단 1년을 제외하고 매년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 그는 46세 되는 해에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하여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탈출했으나, 워털루전에서 패하여 다시 세인트 헬레나섬에 유배되어 6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지금도 많은 프랑스인들이 敬虔한 尊敬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戰略이란 時間과 場所를 使用하는 學文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는 대체로 “戰術의 要諦는 作戰上의 決定的 시기에는 될 수 있는 한 최대의 兵力을 集中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兵力의 집중 투입은 많을수록 그 效果가 증대한다.” “戰爭에는 고유한 戰術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하여 人間의 心理를 파악하고 이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스탕달은 나폴레옹戰略의 眞髓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戰場에서 적으로 하여금 한사람의 병사가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적으로 賢明한 考察과 상세한 사실을 蓄積하지 않으면 戰爭에 이길 수 없다.” 동시에 여하한 精兵이라 할지라도 戰場에서 心理戰의 이해를 잘못하여 指揮統率이 잘못 될 때는 雜兵과 같다고 했다. 나폴레옹 戰略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古代 指導者의 戰略에 추가해서 近代時代의 計劃的, 意識的 心理戰術을 도입한 효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근대적 戰略 心理戰을 움트게 했음을 엿볼 수 있다.⁴⁴⁾

그는 軍을 움직이는 要因으로 다음과 같은 心理的 因子를 기본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것은 祖國에 대한 情熱, 名譽慾, 형벌의 공포, 自尊心, 허영적 관심, 금전에 대한 애착 등으로서 이는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心理的 戰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폴레옹 장군은 특별히 휘하 장병들의 精神을 잘 파악하여 心理戰術로 뭉치고 협조하게 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戰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어느 戰鬪에서 나이 어린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졸고 피곤함에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 병사를 처벌하지 않고 나폴레옹 자신이 보초 근무를 대신하여 줌으로써 그 병사에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忠誠心을 이끌어내게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로 전부대원을 團結시켜 하여 疾風처럼 나뉘어져 進擊하고 합쳐서 攻擊하여 敵의 意表를 찌르는 殲滅的인 戰略으로 戰爭에 連勝을 할 수

44) 金基道, 앞의 책, pp. 158~159.

있었다.⁴⁵⁾ 이와 같이 나폴레옹 장군은 근대 전략심리전을 意識的·計劃的으로 수행한 指導者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3) 비스마르크 外交 心理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Furst von Bismarck, 1815~1898)⁴⁶⁾가 獨逸 統一事業을 성취시켜 大獨逸帝國을 건설한 것은 軍事力을 배경으로 한 外交上의 승리를 國民感情과 잘 결합시킨 수완으로서 당시 비스마르크의 外交心理戰略은 歷史上 不滅의 성공적인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비스마르크 수상의 獨逸統一의 숨은 배경에는 그의 外交力과 參謀總長 몰트케 장군과 國防長官 론 將軍의 軍事的 能力이 있었다. 몰트케는 戰術 面에서, 론은 軍制 面에서 각기 비스마르크를 충실히 보좌하였고, 그 外交戰略을 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⁴⁷⁾ 그 위에는 皇帝도 여러 가

45) 나폴레옹 將軍의 戰略心理戰은 孫子가 兵法 제7편 軍爭에서 강조한 迂直之計의 心理戰略을 模倣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돌아가는 것이 곧 바로 가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나폴레옹은 1800년 마렝고(Marengo)전역에서 알프스를 횡단하여 제노바-니스간 접근근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멜라스(Melas) 장군 휘하의 오스트리아군 배후에 진출한 작전과 1805년 울름에 기지를 두고 다뉴브강과 라인강 상류의 흑림지대를 통한 나폴레옹군의 진출에 대비하고 있던 마크장군 휘하의 오스트리아군의 기대와는 달리 나폴레옹이 라인강 중류에 도착하여 광정면 機動으로 비엔나-울름간의 오스트리아 兵站線을 차단하는 作戰勝利는 心理戰略에 의한 것이다(孫子 著, 김광수 解釋, 「孫子兵法」, p. 222).

46) ‘비스마르크’는 나폴레옹 1세가 마지막 敗北한 해인 1815년 4월 1일 쾰른에서 誕生하여 1898년 6월 30일 프리드리히슈루에서 死亡했다. 비스마르크를 鐵血宰相, 외교의 名手로 부르면서도 대내정책에 있어서는 失敗를 거듭했다고 하는 등의 비난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국민이나 政治家들은 “자기들이 이룩한 국가는 자기들의 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비스마르크의 말을 그 동안 많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젊은 시절(1835) 베를린에서 司法官 試補試驗에 합격하여 베를린 이하엔 법원 근무를 한 일이 있고 프로이센 하원의원(1849~1850), 파리주재 公使(1862), 프로이센 각료회의 의장을 거쳐 1867년 연방수상(1890년 사임)이 되었다. 재임기간 중 활약과 업적은 대단하였고 외교활동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W. 몸젠 著, 李泰永 譯, 「비스마르크」(서울: 삼성문화재단, 1975), pp. 218~219).

47) 趙永甲, 「韓國 民軍關係論」(서울: 한원출판사, 1994), pp. 20~25.

지의 형태로 활용하였는데 비스마르크 수상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지휘봉을 흔드는 입장과 같았다. 그러나 의회와 정면으로 맞서 대립하고 있던 鐵血宰相 비스마르크의 政治的 입지는 불안정했다. 그 당시 국내의 政治的, 社會的 不安定을 克服한 그의 비밀은 軍事力을 배경으로 한 外交上의 승리를 아주 적절하게 國民感情과 結合한 수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의회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던 自由主義者들도 정부의 軍備擴張에 반대함에 따라 獨逸統一을 위해서 필요한 軍事力 育成을 인정하지 않았던 커다란 모순을 비스마르크는 슬기롭게 제거해 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비스마르크의 外交心理戰略의 目標로서 제1단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를 도발시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獨逸聯邦을 破壞하는 것, 제2단계에서는 프랑스를 노하게 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獨逸帝國의 統一을 完成하는 것, 제3단계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통일된 獨逸帝國의 安定과 秩序를 도모하는 것이었다.⁴⁸⁾

비스마르크 수상은 먼저 1866년 오스트리아에 관한 戰爭을 구상하기 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회견을 통해 라인강 서안의 領土를 할양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우선 프랑스의 중립을 확보하였다. 그 후 비스마르크 수상은 보오전쟁을 일으켜 승리할 수 있었다. 1870년 보불전쟁 開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비스마르크의 謀略 心理戰으로서 歷史上 유명한 것이 바로 엠스(Ems) 電報事件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이 事件으로 보불전쟁이 일

48) 林建太郎 編, 「獨逸史」, 東京, 1966, p. 189.

49) 엠스(Ems) 電報事件이란 독일왕족 레오폴드가 스페인 王位를 繼承코자 하였으나 프랑스의 강한 抗議로 挫折된 일이 있었다. 그 후 프랑스외상 그라몽은 엠스에서 휴양중인 프로이세의 빌헬름왕에게 大使를 보내어 “차후 獨逸係王族은 스페인王의 後繼者가 되지 않는다”는 文書로 나폴레옹三世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빌헬름왕은 이 일을 즉시 電報로 비스마르크에게 알렸다. 프랑스와의 戰爭機會을 노리고 있던 비스마르크는 이를 好機로 판단하고 양국 국민들의 분노를 誘發시키는 心理戰에 활용하였다. 요컨대 빌헬름왕이 프랑스대사와의 접견을 거절한다는 단순한 電報內容을 프랑스대사가 무례한 態度로 國王에게 無法한 요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誇張하여 新聞에 公式發表해 버렸다. 드디어 비스마르크의 意圖대로 獨逸國民들은 흥분하였고, 격분한 프랑스로 하여금 挑發者로서 戰爭을 誘發케 하였던 것이다(岩島久夫, 「心理戰爭」, pp. 83~84).

어나게 되어 비스마르크 수상은 정치외교정책을 수행하고, 몰트케 參謀總長은 軍隊를 잘 지도하여 戰爭을 勝利로 終了시켰으며, 독일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보불전쟁 후의 비스마르크 수상은 對外政策을 통일독일의 安全保障 確保를 根本理念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를 國際적으로 완전히 孤立시키는 일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과 프랑스가 항상 敵對關係에 있음을 前提로 하여 그 外交政策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두렵게 여겼던 것은 프랑스의 復讐였으며, 이것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바로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戰略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近代戰에서 가장 卓越한 外交 心理戰略을 수행한 비스마르크 수상은 外交力과 軍事力을 統合하고, 安保·外交戰略과 組織的·計劃的 心理戰略을 結合하여 獨逸統一을 이룩할 수 있었고, 보불전쟁 후 독일의 安保問題까지 고려한 國家政策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이와 같은 外交 安保戰略은 現代 外交戰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現代의 心理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近代 이전 心理戰이 통솔자의 선천적 능력이나 소질에 의존하여 수행되었다고 본다면 第1次 世界大戰을 포함한 近代 이후의 심리전은 國家의 存亡을 전제로 가일층 組織的이고 計劃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近代 이전에는 心理戰 主體인 統治者 또는 支配者가 직접 수행하였으나, 근대 이후는 科學文明의 발달로 戰爭의 手段과 規模가 變化되었고 大衆媒體가 발전하면서 心理戰의 主體가 國家機關 또는 軍 專門機構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現代戰에 있어서 心理戰의 主體는 특별히 심리전을 成功的으로 수행한 指揮官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기타 戰爭에서는 國家(政府)機關을 心理戰 主體로 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1) 第1次 世界大戰

第1次 世界大戰대전을 계기로 心理戰은 중요한 무기로 變貌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戰爭에서 이길 수 있게 한 武器”라고까지 指稱하게 되었다. 第1次 世界大戰에 이르러 宣傳이 活潑해 졌는데, 그 이유는 關係諸國이 대량의 通信機를 그 文化活動의 일부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第1次 世界大戰말기에 독일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에리히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 1865~1937)는 독일심리전의 실패를 認定하면서 “獨逸軍은 戰爭에서 이겼으나 일반시민이 聯合軍의 宣傳에 현혹되어 戰意를 喪失했기 때문에 戰爭을 中止해야만 했었다”⁵⁰⁾라고 말했다. 이는 第1次 世界大戰에서 宣傳心理戰이 얼마나 威力있는 武器였는지를 입증한 것이다. 戰爭 對象國 중 最初로 心理戰을 전개한 나라는 英國이었다. 영국은 1914년에 戰時 宣傳局(War Propaganda Bureau)을 설치하여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對外宣傳을 遂行하였다. 이때 영국의 宣傳目的은 영국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 알려 독일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영국은 政治戰(Political Warfare)과 뉴스선전을 조정하는 言論政策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國家政策 決定者와 심리전 담당자간의 實際的인 연결을 취하도록 하는 기초를 확립하였다.

第1次 世界大戰 중 獨逸을 戰慄케 한 미국의 宣傳은 두 機關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그 하나는 弘報委員會였으며, 또 하나는 美國 派遣軍 司令部에 소속된 G-2 宣傳班(心理班)이었다.⁵¹⁾ 당시 情報省長官 산하에 노스클리프 하우스(Northcliff's House)라고 불리우는 戰時 宣傳本部의 創設은 心理戰

50) Wolfgnag Schieder, *Weltkrieg, Koin*, 1969, p. 79.

51) 미국의 心理戰 組織은 미 陸軍省 산하 4개 부서에서 분담하여 담당하였다. 즉 제1차 世界大戰이후 心理戰을 담당하여 왔던 G-2 산하의 心理戰課와 1947년 이후 심리전을 지휘 관장하던 G-3 산하의 心理戰果가 있다. 이 외에도 심리전 훈련담당기구인 심리전센터가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戰術的 心理戰 지원을 위한 野戰心理戰 특수부대인 전술정보 분과가 미 陸軍省 직할로 존속하였다(Paul M. A. Lineberger, *Psychological Warfare*, Washington : Combat Forces Press, 1954, p. 301).

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⁵²⁾ Northcliff's House는 미국의 선전기관인 '公報委員會'와 손잡고 聯合國側의 對敵宣傳을 能率的으로 실시하였고 연합국의 모든 대적선전 활동을 綜合指揮함으로써 名聲을 떨쳤다. 그리고 독일군간에 "獨逸軍을 괴롭히는 特別長官"이란 名稱이 붙여질 정도로 당시 Northcliff 卿은 심리전의 名將으로 부각되었으며, 猛活躍을 하였다.⁵³⁾ 미국은 심리전 기관으로 "크릴위원회(Creel Committe)와 軍 心理戰 機關을 가지고 있었다." 크릴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聯合國, 中立國 및 敵國의 民間人에 대한 責任을 맡았다. 동 委員會는 弘報傳單의 단일기관이었다. 그러나 他 機關과의 連繫性 및 聯合軍 전체와의 보조가 맞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의 심리전은 프랑스 遠征軍 司令官이었던 퍼싱(John Jeseeph Pershing) 將軍에 의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퍼싱將軍의 傳單心理戰에 관하여 살펴보자.

① 퍼싱 將軍의 傳單心理戰

제1차大戰 당시 퍼싱(John Jeseeph Pershing) 將軍은 프랑스 遠征軍 司令官으로서 獨逸軍과 맞서 싸웠다. 그의 휘하에 있던 G-2가 心理戰을 담당했고, 심리전반은 民間人과 軍人으로 구성되었다. 이 심리전은 "戰意關係 및 향복권고 傳單"에 노력을 집중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⁵⁴⁾ 그들이 사용한 手段은 당시에는 라디오나 확성기가 아직 大量通信 手段으로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氣球나 항공기가 空中撒布의 主 手段이었으며, 曲射

52) W. J. Severin and Tankard, Jr., *Communication Theories* (New York : Hasting House Publishers, 1979), p. 115.

53) Northcliff 卿의 心理戰 活動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매일 20만부 이상을 獨逸軍 陣營에 살포하여 獨逸政府에 대한 不信感을 조성하고 독일의 戰爭目的에 대한 무가치성을 宣傳하였다. 둘째, 중립국과 독일동맹국에 反獨思想을 고취하는 각종 유인물을 대량 투입시켰다. 셋째, 각국어로 인쇄된 傳單 및 雜誌 등을 敵國과 적의 衛星國에 다량 투입시켜 軍民離間, 相互不信, 不安感 조성, 暴露戰術 등으로 심리적 혼란을惹起시켰으며, 그들의 戰爭意慾을 喪失시키고 團結心を 약화시켰다(陸軍本部, 「心理戰敎範」, 1988, p. 198).

54) 퍼싱 將軍은 전단내용의 확실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 차례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戰意分析表」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砲에 의한 傳單撒布 방법은 현저하게 개선된 상황이었다.⁵⁵⁾

퍼싱 司令官은 독일인이 항복하는 경우 最上級の 美國食糧을 줄 것을 약속하는 많은 양의 傳單을 제작하였다. 傳單製作의 중점은 현실적인 모든 항복주제, 즉 좋은 식사, 人道的 待遇, 國際法上的 特權, 生存한다는 것의 愛國의 價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再會 등에 두었다. 그러나 다양한 實驗 結果 결국 식사문제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祖國이 굶주리고 있는 狀況을 알고 있던 공복의 兵士로 구성된 獨逸軍隊에 있어서는 식사물의 열거는 現實的으로 強迫感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퍼싱 將軍의 心理戰 遂行은 독일의 對抗心理戰⁵⁶⁾에도 불구하고 獨逸兵士들로 하여금 계속 降伏하게 하였다.⁵⁷⁾ 이처럼 成功을 거둔 퍼싱 司令部의 G-2활동은 다만 일반 心理學을 원용했을 뿐이며 심리전에 心理學者가 실제 動員된 것은 第2次 世界大戰에서 활용되었다.

2) 第2次 世界大戰

第2次 世界大戰의 심리전은 第1次 世界大戰 때보다 좀더 戰略的이고 장기적 目的下에 행하여 졌다. 이때의 심리전은 언제나 武力에 先行되었고 무력을 사용한 후에도 계속 되었다는 것이 特徵이다. 당시 그들의 戰爭觀 속에는 宣傳力을 최대한으로 發揮하여 武力의 動員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現代의인 戰略方法이 내포되어 있었다.⁵⁸⁾

55) Lineberger는 당시 傳單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戰意關係의 傳單은 당시 세계의 反 軍國主義的 및 民主主義的 感情을 이용했었다. 예컨대 獨逸政府의 獨裁와 非能率은 절호의 標的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특히 독일병사들과 그의 將軍들, 貴族 및 官僚들과의 관계를 반목케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집중시켰다.

56) 독일의 對抗 心理戰(Counter Psychological Operations)을 보면, 독일 最高司令部는 연합국의 전단, 특히 美國傳單에 대해서 “宣傳을 무시하라”고만 呼訴하는 것으로 反擊을 企圖했었으며, 獨逸軍이 敗北가 가까워 졌을 때에도 이와 같은 抑壓的인 文句의 命令만을 倂상적으로 되풀이하였다.

57) Lineberger, 앞의 책, pp. 68~70.

58) 중앙정보부, 「心理戰 敎範」, 1969, p. 182.

한편, 크리스(Enest Krist)와 라이츠(Nathan Leites)는 제2차 世界大戰에 있어서의 心理戰은 제1차 世界大戰時에 비해 보다 理性的이라고 말하며 兩次 大戰의 心理戰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相異점을 지적하였다.⁵⁹⁾

첫째, 제2차 世界大戰의 せん전방식은 冷靜性(Sobriety)의 비율이 높다. 즉, 극단적으로 感情의인 용어의 사용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제2차 世界大戰의 せん전은 道德의인 색채가 적다. 즉 善惡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사실에 관한 陳述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第2次 世界大戰의 宣傳은 確證되고 사실과의 거리가 적었다. 즉, 사건에 대한 보다 충분한 情報가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相異점은 제2차 世界大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더욱 뚜렷하게 되었으며, 獨逸이나 蘇聯의 宣傳에서보다 聯合國측의 宣傳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⁶⁰⁾

당시 聯合國 心理戰의 目的은 첫째, 敵國 國民의 士氣를 꺾을 것. 둘째, 적의 占領地域에 있는 주민에게 解放의 希望을 갖게 하고 占領軍에 대한 抵抗을 약화시킬 것. 셋째, 中立國民으로부터 精神的 支持를 획득할 것. 넷째, 聯合國의 分열을 노리는 敵國의 宣傳工作에 對處하여 聯合國의 사기를 鼓舞하고 상호간의 理解를 깊게 할 것 등이었다.

이에 반해 나치독일의 宣傳活動 指導原理은 대내적으로는 統一獨逸의 結束을 굳게 하며, 대외적으로는 聯合國내에 分裂과 混亂을 야기케 하는 것이었다.⁶¹⁾ 이러한 心理戰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제2차 世界大戰에서는 각국마다 心理戰 機構와 專門要員, 豫算 등을 확보하여 體系의인 심리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서 美國, 英國, 獨逸軍에서 成功的으로 遂行

59) Ernest Krist and Nathan leites, "Trends in 20th Century Propaganda" in Bernard Berelson and Morris Janowitz(ed),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1958, pp. 267~277(金基道 編著, 「政治宣傳과 心理戰略」, 나남출판사, 1990, pp. 167~168. 再引用).

60) 鄭允武, 「現代政治와 心理戰略」(서울: 博英社, 1980), p. 134.

61) 高準鳳, 앞의 책, p. 18.

한 心理戰의 戰術的 運用實態를 살펴보자.

① 아이젠하워 將軍의 戰意 心理戰

美國이 낳은 名將 아이젠하워 將軍은 어려운 戰時狀況에서도 틈이 나는 대로 戰鬥部隊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激勵하였다. 전선은 날로 확대되고 독일군의 저항은 決死的이어서 휘하의 參謀들은 중지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방문했다. 戰場의 兵士들은 전쟁의 恐怖症으로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사들의 士氣를 昂揚하고 戰意를 갖게 하는 것은 指揮官 자신이 직접 격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크의 部隊訪問이 장병들에게 엄청난 心理的 影響을 준 것이다.

첫째, 최고사령관인 五星將軍이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면 이곳이 危險한 지역이 아니구나 하는 安堵感을 주었다. 둘째, 아이크가 가는 곳은 항상 勝利했다. 따라서 이번 戰鬥에도 우리 部隊가 勝利 할 수 있다는 自信感과 戰意를 북돋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아이크의 絶對的 信賴에서 오는 부하들의 一體感으로 부대의 團結을 공고히 하여 단결된 힘으로 백번 싸워 백번 勝利할 수 있었다.⁶²⁾

② 몽고메리의 對內 心理戰

英國이 낳은 제2차 世界大戰의 名將 몽고메리(Bernaed L. Montgomery)는 1942년 리취 장군의 후임으로 영국군 8군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사막의 여우”라고 別稱한 독일 롬멜 장군의 攻勢에 혼이난 영국군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逃亡가는 병에 걸려있었다. 이러한 부대를 인수한 몽고메리는 撤收計劃을 취소하고 엘알라메인 戰線에 그의 모든 努力을 기울였다. 우선 그는 獨逸軍이 별거 아니라는 認識을 심어주고 몽고메리의 意志를 따르는 자는 褒賞을 주고 따르지 않는 자는 벌을 주어 逃亡가는 病을 치료하였다. 獨逸軍과의 전투에서 勝利하기 위해서는 전투의지를 고양시켜야 했다. 몽고

62) 陸士 戰史學課 編, 「나라를 빛낸 名將들」(서울: 병학사, 1984), pp. 339~340.

메리는 이를 위해 士氣를 昂揚하고 戰鬪意志를 갖게 하는데 休暇, 休養, 褒賞, 進級 등의 방법을 통해 動機를 誘發하여 전투의지를 高揚했다. 그 결과 英國軍은 독일군에 대한 恐怖心을 완전히 제거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必勝의 신념을 갖고 전투에 임한 결과, 엘알라메인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 후 영국군은 獨逸軍에게 한번도 敗하지 않는 몽고메리의 神秘한 奇蹟을 창출했다. 이는 몽고메리의 卓越한 指揮力과 그를 절대적으로 信賴한 부하들이 그의 말에 服從한 결과가 만들어낸 것으로 “사막의 새양쥐”라는 別稱을 얻게 되었다. 이는 몽고메리의 豫測과 未來를 내다보는 慧眼의 知識과 강력한 指揮統率力의 對內 心理戰이 만들어낸 金子塔이다.⁶³⁾

③ 히틀러의 宣傳 心理戰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⁶⁴⁾는 1933년 1월 수상으로 임명받은 즉시 3월 訓令에 의해 國民啓蒙宣傳省(宣傳省)을 창설⁶⁵⁾하고 정부의 시책 및 독일의 재건을 위하여 國民啓蒙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히틀러는 宣傳에 대해 “理念的 信奉者를 획득하는 것이며, 組織의 큰 任務는 이들 信奉

63) 안희준, 「주요 戰爭史에 나타난 心理戰 事例研究」, p. 99.

64) 아돌프 히틀러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중등학교 중퇴 후 화가가 되기 위해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미술학교에 지원했으나 두차례나 낙방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빈의 독신자 합숙소를 전전하면서 엽서·광고 그림으로 생계를 이어 나갔다.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각한 민족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실패한 예술가 히틀러는 열렬한 독일민족주의·반유대주의·반슬라브주의자로 탈바꿈했다. 반유대주의는 독일인의 민족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독일인 중소상공인과 자영농민의 유대인 자본가에 대한 불만이 표출한 것이다. 히틀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불우한 경험에서 비롯된 기존 부르조아 사회에 대한 적개심, 비독일인에 대한 맹목적 증오감, 그리고 가난에서 오는 심한 열등감이 겹쳐졌다. 히틀러의 신념은 그 후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으로 체계화됐다. 나치즘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좌절에 빠져 있던 독일인들, 특히 중·하류층으로부터 환영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위해 유대인들을 공격대상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반유대주의는 독일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으며, 세계를 상대로 반유대주의를 조직적으로 선전했다. 1941년 나치독일은 유대인 말살정책을 공식화했으며, 집단수용소에서 6백만명 이상을 학살했다.

65) 岩島久夫, 「心理戰爭」(東京:講談社, 1968), p. 97.

者들을 활동적인 당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宣傳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장래 組織을 위해 人力을 확보하는 것으로 組織事業 역시 宣傳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획득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組織의 宣傳이 앞에서 제시한 役割과 機能 속에서도 같은 機關을 스스로 組織下에 두고 혹은 감독하여 綜合的으로 宣傳活動을 실시하였던 것으로서 겉으로는 宣傳的인 行動이 실시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獨裁國家의 特殊性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광대하고 빈틈없는 조직 아래에서 실시되었던 히틀러와 게펠스의 선전활동의 실체는 과연 어떠했는가? 중요한 特徵은 히틀러 宣傳心理의 指導原理이다. 對內的으로는 統一獨逸의 절대적 不敗性을 과시하는 것이고, 對外的으로는 외국에 있어서의 불통일과 混亂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우선 對內活動부터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⁶⁾

첫째로 대단히 強力한 行動의 뒷받침에 의해서 강한 言語의 威力을 증대시켰다. 행동이라는 것은 시각에 강한 刺戟劑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세심한 演出이 描寫되었던 것이다. 제복을 비롯하여 음악대·나치스 배지 등이 모두 演出을 위한 小道具였으며 舞臺裝置, 照明, 背景音樂, 사전의 豫備의 行動 등의 故意的인 行動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당시 라디오는 主體者가 意圖하는 方向으로 狀況을 적절히 演出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둘째로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一般大衆의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실을 誇張하거나 다른 사건을 적절한 宣傳에 의해서 해결하였다. 예컨대 세금의 인상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와 같은 政策은 바로 大獨逸의 建設을 위해서 꼭 필요한 愛國者의 義務라고 설명하여 국민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抑壓하였다.

셋째로, 宣傳組織을 충분히 활용하여 어떤 政策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동의를 국민들로부터 얻어냈던 것이다. 종래의 官僚的 弘報活動

66) 趙永甲, 「韓國心理戰略論」, pp. 155~160.

과는 달리 유기적인 組織活動을 통해서 국민들의 저변에 이르기까지의 예비적으로 유효한 선전이 충분히 실행되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獨裁政治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극을 주지 않고 또한 强壓的인 인상을 받지 않으면서 나치스 선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다음은 심리전의 對外活動 指導原理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對外心理戰의 목적은 다른 나라들을 分裂, 離間, 不和, 混亂시키는데 있었다. 나치스의 정권 초기에는 새로운 政府로서 타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치스의 海外宣傳이 처음에는 消極的이고 防禦的인 성격을 띠고 國家社會主義에 대한 외국의 의혹을 풀게 하며, 海外的 獨逸 國民과의 연락을 도모하려고 했었다. 다른 나라와의 分裂이라고 하는 意圖에서는 本質的으로 동일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威脅으로부터 回遊로, 眞實로부터 虛僞로, 國家機關으로부터 個人까지, 大衆 媒介體로부터 구두통신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극히 교묘하면서 시기에 맞게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友好的인 국가에 대해서는 불신의 씨를 뿌리지 않도록 하고 敵對國에 대해서는 敵對國 그들 相互間에 불신감을 造成케 하는 離間策을 썼던 것이다.⁶⁷⁾ 中立國은 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獨逸側에 호의를 갖도록 하는데 노력하였다. 확실히 이들 나치스 獨逸은 이와 같은 신중한 配慮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對外宣傳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나치스의 對內的 對外的 宣傳組織과 그 활동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히틀러의 心理戰에 있어서 根本的인 缺陷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大衆心理를 全體的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민은 대중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고, 合理的인 思考와 판단을 원하며, 抵抗의 心理的 衝動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히틀러는 忘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히틀러 자신의 政策의 成功을 가리켜 소위 宣傳의 成功으로 귀착시키고 있었으나 과연 그가 생각한 대로

67) 岩島久夫, 「心理戰爭」, pp. 102~106.

그런 것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나치스의 宣傳이 성과를 거둔 것은 말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行動이 실시되었고 行動을 보다 가능케 한 것은 莫強한 軍事력과 철두철미한 警察力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는 히틀러의 心理戰은 평시의 심리전에 불과했다. 전시로 전환되고 戰爭狀態가 심화되어 갈수록 그 效果는 악화되어 갔다. 평시와 전시에 있어서 그 環境이 각기 어떻게 變化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認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넷째로 히틀러의 宣傳 第一主義가 역으로 相對側의 意圖를 探知 당하는 원인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逆利用 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틀러가 어떤 行動을 취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너무나 과도한 豫備的 工作이 실시되었다. 라디오 방송이나 신문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 相對國들이 면밀하게 觀察 整理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결국 相對 國家들에게 探知 당했던 것이다. 히틀러도 결국 이 逆宣傳 때문에 패했던 것이다. 攻勢의 心理戰으로서는 優位에 있었으나 防禦的 心理戰의 중요성을 看過하였다고 볼 수 있다.

히틀러가 心理戰의 重要性을 認識하였던 것은 그가 병사로서 참여한 第1次 世界大戰에서 전선의 참호 속에서 聯合軍의 눈에 보이지 않는 恐怖를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 무서운 戰爭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은 히틀러가 나폴레옹과 똑같은 과오를 범하여 國力を 기대이상으로 評價하여 戰爭을 서슴지 않고 감행했다는 것이다.

3) 6·25戰爭의 理念的 心理戰

6·25전쟁에서 心理戰 樣相은 기본적으로 第2次 世界大戰 중에 사용된 심리전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었다. 동시에 冷戰時代의 심리전 현상을 예고하는 過渡期的 特性을 가지고 있다. 즉, 6·25전쟁시 UN군의 심리전 양상은 第2次 世界大戰을 통하여 정리된 심리전 敎理가 그대로 적용되어 사용된 반면 共產陣營은 새로이 등장하는 매스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組織的인 心理戰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미

국은 第2次 世界大戰을 통하여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서도 實戰에 效率的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批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⁶⁸⁾ 어쨌든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쓰라린 고통을 준 戰爭이었으나 심리전 측면에서 보면 큰 敎訓을 얻은 契機도 된 것이다. UN군과 共產軍의 心理戰이 주로 실시되었으나 국군도 施行錯誤를 겪으면서 심리전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心理戰 實態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① 自由陣營의 對敵宣傳 心理戰

㉞ UN군의 心理戰

트루먼 美大統領이 共產侵略者를 막기 위해서 미군에게 出動命令을 내린 후 24시간 이내에 이미 최초의 傳單이 敵 地上에 投下되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心理戰 放送(UN軍 放送)이 시작되었고, 敵 戰線 및 後方住民에 대하여 강력한 宣傳放送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心理戰은 신속하게 戰鬪에 利用되었다. 전쟁 勃發 後 1개월도 되기 前에 미 陸軍省은 野戰心理作戰을 위한 새로운 部隊 編成概念을 승인하고 새로운 복안으로 心理戰 부대를 창설하였는데 그것은 戰略宣傳 지원부대와 戰術宣傳 支援部隊였다. 極東軍 總司令部 心理작전 담당과는 라디오와 傳單을 제작 살포할 수 있게 編成되어⁶⁹⁾ 軍事作戰을 지원하는 戰略心理戰을 담당하다가 宣撫中隊가 창설되면서 戰術心理戰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확성기 및 傳單中隊의 임무는 野戰에서 전투부대의 戰術宣傳 支援에 목적을 두고 軍團의 作戰統制下에 運營되었다. 라디오는 戰略 및 宣撫 매체로 통합 운영되었으며, 전쟁초기에는 美國의 政策에 대한 放送이었고 점차 유엔軍司令部的 放送으로 전환하였다.⁷⁰⁾ 전투가 벌어진지 몇 달 안되어서 24개조의 擴聲器班이 일선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가하였다. 강력한 地上 擴聲器를 사용하는 이러한 放送組는

68) Murray Dyer, *The Weapon on the Wall* (N. Y. : Arno Press, 1979), pp. 113~116.

69) 部隊編成은 본부와 본부중대, 傳單제작중대, 機動라디오 및 傳單중대로 편성되었다가 1953년 宣撫중대가 創設되었다.

70) 안희준, 「주요 戰爭史에 나타난 心理戰 事例研究」, p. 62.

전선을 따라 적에 대하여 투항 및 特殊狀況을 放送하는 것이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共產主義者들이 아군의 擴聲器 放送을 듣고 도주하는 그들 병사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증거에 비추어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군은 共產侵略者에 대해서 傳單을 撒布하였다. 한국의 전단사용의 규모는 이전에 상상조차 못하였던 많은 양이었다. 미 極東軍司令部에서는 심리전이 전쟁에 참가한 뒤 쌍방의 敵對行爲가 종식될 때까지 北韓의 後方住民에 대하여 무려 40억 매의 戰術 및 戰略傳單을 살포하였다.

당시 포로 및 避難民의 審問報告에 의하면, 이러한 心理戰略이 적의 사기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空中投下 및 砲兵彈으로서 적에게 전달되는 아군의 전단은 글과 그림의 형식을 채택하고 적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아군의 목적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第2次 世界大戰에서의 心理戰 原則에 입각한 傳單作戰의 범위는 방대한 것으로서 압도적인 화력과 병행하여 사용된 戰術傳單은 적부대의 사기 및 전투능력을 철저하게 분쇄하였다. 6·25戰爭에서 心理戰의 戰史的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중공군 연대내의 어떤 부대는 아군에 투항 또는 安全保障證 형태의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성공적으로 거둔 전단임무는 맹렬한 野砲射擊部隊와 협조한 결과 많은 귀순병을 획득하였다. 捕虜審問報告에 의하면 적군에게 심리전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병사들이 투항하게 됨에 따라 부대내부에 있어서는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다. 적은 장기간에 걸쳐 主 抵抗線에 위치해 있었으며, 肉體적으로 피로해 있었다. 아군의 심리전은 재빠르게 이러한 사실을 간파함으로써 그 狀況에 機會의 目標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귀순한지 얼마 안된 捕虜의 사진을 傳單에 掲載하고 UN군에 의하여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선전하였다. 최초의 중국군이 귀순한 후 UN군은 수 천매의 전단을 中國軍 연대에 살포하고 포로에 대한 아군의 좋은 대우를 선전하였다. UN군은 仁川上陸作戰이 성공하면서 이처럼

6·25전쟁 동안 심리전의 기전을 장악하였으며, 1953년 7월까지 심리전의 새로운 原則과 技術을 발전시켰다.

UN군은 완강하고 精神的으로 武裝된 적을 대상으로 宣傳心理戰 수행으로 전쟁기간 중 가장 놀랄 만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十萬달러의 비행기 월납사건이었다. 북한의 조종사가 MIG-25기를 몰고 歸順하여 UN軍司令部로 인도됨으로써 십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MIG 전투기의 탈출을 煽動하는 宣傳心理戰을 시작한 目的은 空軍情報를 위한 미그기를 획득함과 동시에 地上部隊의 戰鬥能力이 心理戰에 의하여 좌우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서 敵 空軍의 戰鬥能力을 저하시켰다. 현상금 제안은 전단 및 방송을 통하여 6·25전쟁 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北韓空軍은 8일간 지상에 억류되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엄격한 身元調査에 통과한 열렬한 共產主義者에 한하여 비행이 허락되었다. 즉 그의 가족을 人質로 구속 될 수 있는 자의 操縱士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을 염려하는 열렬한 共產主義者의 전부가 優秀한 操縱士는 아니며 飛行 編隊長은 그들의 대원이 자기에게 총 뿌리를 돌리고 大韓民國으로 향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美 第5空軍은 90일간에 두 배나 되는 MIG 戰鬥機를 격추시켰고, 美空軍 세이버전투기(F-86)의 손실은 90일간 이전의 7대에 비교하여 한대의 손실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6·25전쟁에 있어서 UN군의 심리전은 실질적인 戰鬥武器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⁷¹⁾ UN군은 6·25전쟁에서 心理作戰의 主導權을 장악하고 1953년 7월 休戰時까지 劃期的인 心理作戰의 새로운 原則과 方法 그리고 技術을 發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UN군의 心理戰은 政治的 思想的으로 투철한 共產軍을 상대로 실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는 太平洋地區 放送視覺 活動本部(U.S Army Broad and Visual Activities PAC)에서 韓國에 派遣隊를 두고 傳單과 기타 간행물을 지원하였으며, 각 戰區에 一個의

71) 合同參謀本部, 「心理作戰의 理解와 實際」, 2001, pp. 112~114.

라디오 放送 및 傳單大隊를 설치하여 맹렬히 활동하였다.⁷²⁾

㉔ 國軍의 心理戰

國軍은 창군 당시 忠誠心과 愛國心을 바탕으로 創設된 것이 아니라 군에 복무한 經驗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군의 前歷을 가리지 않고 편성하였다. 그 결과 과거 日本 國王에게 충성을 맹세한 日本軍으로 우리 민족의 獨立을 위해 鬪爭하는 獨立軍을 토벌하는 作戰에 앞장을 서고 우리 民族에게 충을 겨는 민족의 反逆者들도 國軍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國軍의 愛國心과 忠誠心 발휘는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고, 북한 共產黨의 政治心理戰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⁷³⁾ 이와 같은 상황에서 6·25전쟁이 勃發하자 대한민국 정부와 國軍은 共產黨의 破壞, 殺人, 테러, 反亂에 효과적으로 對應하지 못하고 초기 共產黨의 心理戰에 끌려 다니는 결과를 낳았다.

戰爭初期 國軍은 水原으로 철수하여 처음으로 計劃的인 傳單을 만들어 비행기(L-19)로 서울지역에 살포하였다. 이후 國軍의 선전은 계속해서 비행기로 對敵傳單을 뿌리는 한편, 정부 주도하에 도시근처에서 방황하는 피난민의 조치가 시급함을 고려하여 우선 가두 壁報宣傳을 수시로 전개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전에서부터는 政訓局이 國家總力戰을 수행하는 가장 중추적인 활동을 하는 核心機構로서의 틀을 잡아 심리전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주었다. 政訓局은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啓蒙宣傳에 앞장을 섰으며, 學徒兵과 義勇軍 出陣에도 役割을 하였고 街頭放送으로 피난민들을 統制하는데 기여하였다. 당시의 國民士氣는 國家의 運命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러한 수난기에 資材와 人員 및 經驗의 부족

72) 안희준, 「주요 戰爭史에 나타난 心理戰 事例研究」, p. 63.

73) 우리 政府가 親日派를 斷絶하지 못함으로써 북한 共產黨은 일본 帝國主義 植民地를 대신해서 미국 帝國主義가 남한에 들어왔으며 大韓民國의 정부를 미제의 앞잡이로 매도하였다. 그 이유는 民族에 반역한 親日分子가 일본 帝國主義, 미 軍政, 大韓民國政府下에서 要職을 차지함으로써 共產黨에게 그와 같은 政治心理戰의 빌미를 제공하였다(안희준, 「주요 戰爭史에 나타난 心理戰 事例研究」, p. 60).

등을 무릅쓰고 전국민을 滅共戰線으로 동원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은 心理戰의 큰 業績으로 평가된다. 심리전이 戰術的으로 수행되고, 防禦爲主에서 攻勢的 心理戰으로 전환한 것은 전선이 낙동강으로 옮겨진 이후부터였다. 한편 미 제1기갑사단이 한국전선에 참가하면서 政訓局 소속으로 활동하여 왔던 學生要員들을 포함한 對敵 宣傳隊가 최초로 大邱에서 발족하였다. 이 對敵宣傳隊는 휴대용 放送機로 裝備되어 낙동강 戰線의 전면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영남 외곽의 防禦陣地를 돌아다니면서 對敵放送을 하며 적에게 心理的인 압박을 강요하는 일련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심리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重大한 課題로 대두된 것은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고 파죽지세로 北進攻擊을 시작했던 시기부터였다. 예컨대 武力戰에서 勝利한 國軍은 갑자기 광대한 收復地區를 갖게 되면서 어떠한 敵性地域에서도 그 곳에 정착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計劃的인 宣撫 心理戰 활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解決方案으로 심리전 專擔 部隊인 772 및 773 部隊의 탄생을 보았다. 그 당시 宣傳部門에서 우수한 學生들을 입대시켜 文官의 資格으로서 組織動員을 하였으며, 유능한 專門家들도 이에 참여케 하여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아 中國軍이 韓國戰線에 불법 개입하게 되어 創設된 兩 部隊는 國軍戰鬪部隊와 함께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부터 對敵宣傳隊는 병무감실 소속으로서 미 제1선전 중대와 合同作戰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C-47에 의한 空中放送과 B-26 및 C-46에 의한 戰略戰術傳單의 살포를 大規模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전선이 교착상태로 들어서면서 心理戰은 武力과 並行된 하나의 本格的인 作戰으로서 감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동안 東京의 美 極東軍司令部에 배속된 라디오 및 宣傳團으로부터 第1對敵 宣傳中隊와 擴聲器中隊가 새로이 韓國戰線에 참가해서 그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였다. 동경과 서울에서 인쇄되는 戰略 또는 戰術 傳單은 하루 평균 200만매에 이르렀으며, 이 傳單은 곧 北韓 地域의 戰線上空에 살포되었고 휴전시까지 아군은 40억매의 傳單을 敵地에 뿌렸던 것이다.

韓國軍의 심리전 활동으로서 특히 기록해 두어야 할 業績은 제주도 智異山地區의 共匪討伐을 위한 집중적인 심리전이었다. 이 單獨的인 計劃과 運營에서 얻은 經驗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교훈을 재확인케 하는 貴重한 作戰이었다. 제주도 心理作戰에는 십여 명의 心理戰 將校와 하사관, 그리고 飛行隊, 特殊部隊 및 警察隊가 合同하여 出動하였다. 이 작전은 당초부터 心理作戰命令이었던 것이다. 작전은 極秘密裏에 進行되었으며 主 目標을 共匪에 두지 않고 住民들에게 두는 心理作戰 原則下에 수행되었다.⁷⁴⁾ 作戰期間은 불과 2개월이고 작전 중에 歸順者는 적었지만 공비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기에 남아 있는 共匪는 몇 명으로 줄었던 것이다. 한편 지리산 주변에서의 心理作戰도 제주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성과가 컸던 것이다.⁷⁵⁾ 그것은 천만단위의 전단이 살포되고, 韓國軍 擴聲器 放送組가 동원되었으며, 戰鬪部隊로는 正規師團이 출동하였다.⁷⁶⁾

② 共產陣營의 政治 心理戰

㉞ 北韓軍의 心理戰

우선 北韓軍의 心理戰 實態를 보면 소련과 중국에 의해 實戰에 經驗이 있는 장교들로 구성되어 공산당의 革命戰略과 戰術에 의한 사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巧妙하고 狡猾하게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그 責任을 前衛隊에 전가하고 共產黨은 人民을 위해 존재하는 人民의 政黨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은 開戰과 동시 ‘北侵’이라는 政治心理戰을 전개하면서 挑發에 대한 責任을 남한과 이승만 정부에 떠넘기는 心理戰을 전개했다. 戰爭의 중반기에는 北韓은 UN군이 細菌戰⁷⁷⁾을 전개했다는 虛偽 主張을 함으로써

74) 心理作戰 原則은 ① 民間人과 共匪의 分離, ② 共匪와 내통하는 자의 殲滅, ③ 國民學校 아동을 통한 軍歌의 部落 浸透工作, ④ 對民傳單 약 50만매와 對 共匪傳單 약 60만 매 撤布, ⑤ 휴대용 放送機에 의한 地上放送 등이었다.

75) 智異山 공비토벌 作戰에는 傳單이 1,000만매가 撤布되었고 韓國軍이 보유한 擴聲器의 절반이 동원되었으며, 1개 정규사단이 출동하였다.

76) 안희준, 「주요 戰爭史에 나타난 心理戰 事例研究」, p. 61.

77) 細菌戰에 관한 北韓의 心理戰은 金요했다. 1951년 5월 8일 北韓外相은 美軍이 1950년 12

守勢에 몰린 그들의 처지를 休戰協商의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와 같은 心理戰의 영향으로 미국은 國際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休戰協商에서도 공산군에게 主導權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對內 心理戰은 攻擊開始 前에 政治 副指揮官이 전투에 투입되는 戰士들에게 전투를 해야하는 目的과 當爲性, 問題와 戰鬪의 性格, 戰鬪의 特徵, 전투에서 승리할 경우 구체적 報償問題와 將來處遇 등 軍官과 戰士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敎育하고, 전투에 勝利하면 반드시 實現된다는 確信을 갖게 하였으며, 戰鬪時에는 개인을 監督하고 監視하여 戰士들이 전장을 이탈하거나 投降하지 못하게 心理戰을 철저히 실시했다.

이와 같이 北韓은 南侵前에 이미 심리전에 관하여 철저한 준비를 완료했는데 이러한 心理戰의 組織的인 體系는 다음과 같은 基本戰略에 根據하여 수행한 것이다.

첫째, 북한이 침입하여 共產활동과 政策을 수행하던 각부는 北韓으로부터 心理戰의 지원을 組織的으로 받고 있었는데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共產主義者들의 執念은 西方世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치 이상

월과 이듬해 1월에 천연두를 傳染시켰다고 UN에 공식 항의하였다. 이것은 소련과 중국 신문을 통해 擴大 報道되었다. 동년 5월 13일 소련 政府 機關紙 “이즈베스차(Izvestiya)”는 천연두 시비와 美國의 세균전 準備說 및 2년 전 소련이 戰犯으로 규정한 일본군 科學者를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풍문을 연결시켰다. 그들이 주장한 근거는 細菌研究의 實驗室을 갖춘 미국 上陸用 선박으로 防疫任務과 戰爭으로 창궐한 콜레라, 천연두, 페스트 등을 豫防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1952년 2월 18일 북한외상 박헌영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서 細菌戰을 수행하고 있다고 公式 비난 聲明을 發表하였다. 이것이 대규모 宣傳攻勢의 신호탄이었다. 이에 中國이 합세하여 美國을 國際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金基道, 앞의 책, pp. 181~184).

細菌戰과 관련하여 오늘날까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東亞日報 2001년 8월 3일자에는 “美軍 6·25전쟁시 細菌戰 의혹 調査” 제하의 기사에서 6·25전쟁 당시 광주 무등산과 전남 화순군 일대에서 미군이 細菌戰을 감행하여 수 백명이 숨졌다는 疑惑에 대해 미국 영국 등 16개국 인사들로 구성된 國際調査團이 現場調査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疑惑이提起되고 있는 것은 6·25전쟁 당시 共產側의 攻勢의인 심리전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의 것이었다. 이것은 “公職者란 누구든지 모두다 宣傳者”라고 하는 바와 같이 軍事, 非軍事의 모든 단계에서 실천되었고 宣傳과 訓練을 지극히 중시했었다.

둘째, 宣傳의 目標은 장기적 목표와 합치하지 않으면 안되고, 일시적 “人氣獲得”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 목표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들의 목적은 韓國人의 태도와 思想을 共產主義 戰略의 장기적 目標과 合致시키려고 노력했고 눈앞의 目的에 重點을 두지 않았다.⁷⁸⁾ 이외에도 매스미디어는 모두 독점되었으며, 서울방송을 占領하여 모스크바에서 訓練을 받은 요원들에게 운영토록 하여 狂信徒의인 政治心理戰을 組織的으로 전개했던 것이다. 다음은 중국군의 政治心理戰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㉔ 中國軍의 心理戰

中國은 6·25전쟁을 ‘朝鮮內戰’으로 規正하고,⁷⁹⁾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 스스로 主管해야지 美國이 干涉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中國의 人民支援軍을 派遣하기로 결정하고, 毛澤東의 명령에 의해 朝鮮戰爭에 참여하게 되었다.⁸⁰⁾ 중국군은 制空權과 制海權의 상실로 인하여 晝間戰鬪는 UN군의 火力과 機動力에 밀려 극히 제한하였지만 초기단계 전투이후 夜間戰鬪와 山岳戰鬪를 중심으로 UN군의 脆弱地를 통해 침투하여 背後를 차단한 후 징이나 썰매, 피리 등을 치고 불면서 UN군에게 心理的 壓迫을 가해 夜間에 중국군의 피리와 썰매 소리만 들어도 UN군이 철수해 버리는 中國軍 恐怖症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中國軍의 心理戰으로 한때는 UN군의 戰線維持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자체의 士氣昂揚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我側 兵士들에게 不安과 恐怖를 안겨주었으며, 때로는 불길한 叵感和 전쟁의

78) William E. Daugherty, *A Psychological Warfare Casebook* (New York : Aron Press, 1979), pp. 611~644.

79)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編著, 「中國 人民支援軍 抗美援朝戰史」(서울: 세경사, 1991), p. 5.

80)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 人民支援軍 抗美援朝戰史」(서울: 세경사, 1991), pp. 4~14.

悲慘함을 연상시키게 하여 UN군의 전의를 喪失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특히 人海戰術이라는 특유한 戰術을 구사하면서 UN군 陣地를 攻擊함으로써 心理的 壓迫을 가하고 中國軍이 갖는 취약점을 政治工作이라는 對內 心理戰을 통해 적개심 고취와 적에 대한 恐怖心을 제거하여 人海戰術로 과상적인 공격을 하는 原動力이 되었다.⁸¹⁾

이상에서와 같이 6·25전쟁은 共產黨의 屬性과 戰略戰術을 간과하지 못한 UN군이 공산군의 心理戰에 끌려 다닌 戰爭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4) 베트남戰의 映像媒體 心理戰

미국인 46,000명의 生命을 앗아가고 수 백억 달러의 財源을 消盡한 “베트남전쟁”은 世界史上 初有의 “TV전쟁”이라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檢閲이 없는 전쟁이었다. 매스미디어로서 가장 影響力을 발휘한 TV는 또 다른 戰線을 형성했던 것이다. 즉, 美國 내에서 輿論의 支持를 確保하기 위한 戰鬪가 전개된 것이다. 전쟁의 大規模性和 새로운 기술의 結合으로(무기, TV, 고성능통신장비의 측면) 軍과 言論은 대단히 큰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전에서 심리전과 보도는 統合하여 수행되지 못했고, 기자들의 취재는 自由奔忙 했다. 이에 따라 미국식 언론 자유는 오히려 취재자유 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몇 분간의 TV 뉴스로 소화할 수 없는 革命戰爭의 複合性 등의 요인들이 結合되어 미국내의 反戰輿論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노이의 宣傳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言論界 종사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越盟政府는 미국 국민들이 反戰輿論을 조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言論自由制度를 교묘히 이용했으며, 미국의 참전 순간부터 이를 위한 潛在的可能性을 파악했다. 더구나 聯合軍은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住民의 基本的 生存權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81) 안희준, 앞의 책, pp. 69~71.

많은 후유증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⁸²⁾ 미군의 무자비한 용단폭격, 고엽제 살포, 지뢰매설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농경지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불만이 높아갔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민을 民族解放戰線(National Liberation Front)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強制的 大規模 주민이동 정책을 집행하였는데, 철저한 사후관리 및 홍보 부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소기의 軍事目的 달성에 失敗하였다.

農村人口의 과도한 都市地域 이동은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도시지역 人口爆發을 야기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베트남 共產政府의 心理戰은 共產化 통일 이전이나 이후에 越南住民 심리전을 적절히 실시하여 이들을 支援 勢力化 하고, 共產主義 資源으로 利用하는데 성공하였다. 共產 指導者들은 衆教育을 革命目標 達成에 두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國家 心理戰 政策에 반영하여 심리전 수행의 根幹으로 삼았다. 지도자들은 베트남의 傳統的 教育觀에 바탕을 두고 社會, 文化의 價值觀과 傳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심리전 정책은 베트남 革命을 성취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베트남 共產化 이후 주민들의 정치적 동의를 획득하고 전쟁의 성과를 極大化하는데 肯定的 역할을 하였다.⁸³⁾ 결정적으로 베트남은 美國內에서 反戰輿論을 일으켜 美國 國民들이 美軍에 반기를 들게 하는데 成功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은 최초로 뉴미디어 시대를 맞은 전쟁으로 미국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심리전에 실패한 전쟁이며 베트남은 미국의 言論의 自由를 교묘히 이용하였고, 逆宣傳을 效果的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普遍的인 評價다.

5) 걸프전의 報道 心理戰

걸프戰爭은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武力 侵攻

82) Alan Hooper 著, 차영구 譯, 「軍과 미디어」(국군 홍보관리소, 1999. 1. 30), pp. 166~185.

83)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p. 138.

함으로써 시작된 戰爭으로 政治·軍事的 國家目標 達成을 위해 可用한 心理戰 資産이 最大化로 動員되었을 뿐만 아니라, 戰略的·戰術的 心理戰을 수행하여 無形戰鬪力을 極大化한 主要 戰史의 事例로 分析되고 있다.⁸⁴⁾ 걸프전에서 美國의 勝利는 과거의 쓰라린 經驗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越南戰에서의 經驗은 美國이 걸프전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미국이 과거에 치른 戰爭에 대한 反省과 批判, 그리고 그 代案은 1981년 發刊된 쉼머스(Harry G. Summers Jr.) 大領의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에서 잘 나타나 있다.⁸⁵⁾

쉼머스 大領은 韓國戰과 越南戰의 分析을 통해서 앞으로 미군의 成功的인 戰爭遂行을 위해 추구해야 할 方向을 제시했다. 그는 國民的 意志의 高揚에 대한 실패를 越南戰의 戰略的 失敗 중 가장 重要的 核心事案으로 보았다. 이것은 적이 확대 가능한 戰略的 脆弱性을 만들었다고 評價하였다.

越南戰 당시 野戰軍司令官이었던 웨스트모어랜드(Westmoreland) 將軍은 "왜 越南은 敗北하였는가"라는 自敘傳에서 越南敗亡의 原因이 言論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新聞과 텔레비전은 勝利가 아닌 敗北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飛騰하는 反戰 무드와 더불어 워싱턴의 소심한 관료들에게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이처럼 美軍이 越南戰의 패배에서 얻은 가장 큰 敎訓은 最優先으로 군과 言論을 어떻게 調和시켜 보도심리전을 遂行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⁸⁶⁾ 越南戰爭을 최초의 "TV 戰爭"이었다고 한다면, 걸프전은 衛星工學 技術의 發達로 인한 최초의 "TV 實況中繼 戰爭"이었다. 따라서 心理戰의 主要 手段인 戰時 宣傳活動이 종래에는 數週 혹은 數個月에 걸쳐 遂行되었다면, 걸프전에서는 分 單位로 수행되었다.

예컨대 多國籍軍의 公습에 의한 民間人 死傷者가 발생했을 때 이라크 당국은 西方 TV 報道陣을 즉각 동원하여 "피의 메시지"를 全世界에 電波했으

84) 合同參謀本部, 「걸프전과 心理戰」(서울: 함참, 1991), pp. 28~36.

85)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Pennsylvania, 1981.

86) Westmoreland 著, 「越南은 왜 敗北하였는가」-野戰軍司令官의 報告書, p. 496.

며, 미국은 이를 회색시키기 위해 “心理戰 專門家”를 불러모아 즉각적인 對應策을 마련하였다. 걸프전에서 心理戰은 실제 戰鬪의 核心은 아니었지만 勝敗의 條件을 規定하고 戰爭의 名分을 세우는 데에 적극적으로 活用하였다.

사담 후세인은 心理戰을 強力한 武器 中の 하나로 認識함으로써 戰術的인 心理戰을 作戰計劃과 統合하여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이라크 병사들의 죽음이나 끔찍한 상처를 報道하거나 多國籍軍 捕虜를 利用하여 염전사상을 고취시켰고, 化學的 威脅을 통하여 염전사상을 겨냥한 심리전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反戰輿論 形成을 위하여 多國籍軍 捕虜에 대한 TV 放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多國籍軍이나 美 國民들로부터 敵愾心を 불러일으키게 하는 心理戰의 逆 效果로 나타났다.

미국의 心理戰은 第4心理戰團의 지원 하에 心理戰과 報道를 統合하여 수행되었다.⁸⁷⁾ 이 부대는 2,900만장의 傳單을 撒布했으며, 메시지를 담은 병 10,000개를 걸프만에 띄우기도 하였다. 傳單 撒布 외에도 “걸프만의 소리 (Voice of the Gulf)”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주제는 코란기도 문 낭송, 이라크군 捕虜의 戰術 및 明日 爆擊 當할 部隊에 대한 正確한 情報의 提供 등이었다. 그 결과 이라크 脫走兵의 대부분은 전단과 방송이 전장이탈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陳述했다. 그러나 보다 극적인 효과는 美 空軍 第8特殊戰部隊와 合同으로 가장 큰 在來式 爆彈⁸⁸⁾을 사용

87) 미국의 심리전은 第1次 世界大戰時 영국의 Crewe House와 공동으로 公報委員會 (Committee On Public Information, 통칭 Creel Committee)를 설치하여 활용하였고, 第2次 世界大戰時 OWI(Office of War Information : 戰時情報局)를 이용한 대규모 정치 심리전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 미국의 심리전 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國家安保會議(NSC) 내의 심리전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정보평의회(USIB)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中央情報局(CIA)등에 하달되며, 다시 육군 정보부(G2), 해군정보부(ONI), 공군정보부 등에 지시되어 실행에 옮기게 된다. 軍事 心理戰 機構는 특수 作戰司令部 예하에 민사 심리전 사령부(USACAOOC)를 편성하고 2전술 지원단(TSG), 4심리전단(POG), 7지역 지원단(RSG)을 두며 4심리전단 예하에 기능별 대대를 두어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88) 在來式 爆彈이란 美軍이 越南戰에서 飛行場 破壞用으로 使用한 BLU-82 Daisy Cutter,

한 점이다. 이들은 2월 6일 이라크군 陣地에 “만일 내일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爆彈을 投下”한다는 警告傳單을 撒布한 다음날 隣接地域에서 作戰 중이던 英國 特攻隊가 核爆發로 緊急 報告했을 정도였다. 이어 “다른 것을 또 준비 중”이라는 후속 傳單을 撒布하자, 그 이튿날 大隊長 이하 많은 수의 이라크 군이 投降했다. 이때 이라크 情報將校가 지참한 埋設地圖에 의해 多國籍軍은 地上戰 개시 1시간 이내에 地雷地帶를 통과할 수 있었다.⁸⁹⁾

또한 미국은 걸프전에서 최소의 희생으로 戰爭目的을 달성한다는 原則下에 武力戰보다는 心理戰에 더 비중을 둔 作戰을 전개한 것으로 分析, 評價되었다. 1979년 사담 후세인이 등장한 이후, 이라크는 세계 제4위의 軍事力을 보유한 國家로 부상하여 아랍세계로부터 美國 등 西方 帝國主義의 勢力을 몰아내고, 中東 地域에서의 알라에 대한 믿음과 莫強한 軍事力을 바탕으로 모슬렘 지역으로부터 外勢를 몰아내고 전체 아랍民族의 自主와 統合을 가져다 줄 아랍세계의 指導的 國家로 浮刻되면서 心理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전쟁을 수행하였다. 걸프전은 國際 뉴미디어 媒體가 참여한 세계 최초의 心理戰爭으로 國民意志와 輿論의 戰爭이었으며, 코멘도솔로(Commando-Solo : 心理戰用 航空機)⁹⁰⁾를 利用하는 등 心理戰 技術을 한 차원 높게 開發하여 活用함으로써 전승의 中樞의 役割을 하였다.

6) 코소보戰의 디지털媒體 心理戰

코소보 戰爭⁹¹⁾은 1999년 3월 24일 美國을 주축으로 한 나토의 공습으로

15,000파운드 폭탄을 말한다.

89) 陸軍本部, 「걸프戰爭 分析」, 1991, pp. 194~199.

90) COMMANDO-SOLO는 空中放送局으로 C-130 航空機에 TV, 라디오 송출장치, 전자전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미국은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報道心理戰에 크게 活用되었다.

91) 코소보전의 발생 원인은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 사이의 뿌리깊은 갈등으로 유고 연방 공화국 내에서도 항상 聯邦體制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다. 알바니아 共產黨의 몰락은 발칸지역의 알바니아 民族主義를 불러 일으켰고 새로 등장한 타

시작되어 유엔이 마련한 G-8平和案을 유고연방이 수용함으로써 78일만에 종료된 전쟁이다.⁹²⁾ 과거의 전쟁은 대부분이 周邊國家나 國際社會의 輿論에 다소 무관심하게 힘의 論理에 의한 밀어붙이기 식의 樣相이었다. 그러나 코소보전쟁은 周邊國家나 國際社會의 輿論을 自國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되었던 手段이 心理戰이었다.

나토측의 심리전은 과거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군과 보도심리전이 조화를 이루어 실시되었다. 당시 報道心理戰의 特徵은 첫째, 과거 칭기즈칸이 활용했던 威壓的 心理戰을 실시하였다. 이는 걸프전에서의 성공요인을 코소보에서 적용한 것으로 미국의 優越性을 全世界에 과시하면서 나토라는 거대한 힘으로 밀어붙여 불응할 시에는 강력하게 報復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둘째, 심리전을 國際舞臺에서 外交的 說得手段으로 활용하였다. 즉 인본주의 및 平和共存을 내세워 世界平和 秩序에 美國政策의 正當性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影響力을 재확인 하려했다. 셋째, 國際社會의 세르비아 膺懲輿論을 당연시 하도록 요구했으며, 참전 유고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스스로 패전을 인정하도록 誘導하였다.

이에 대해 유고군은 외국군의 內政干涉을 반대하여 세르비아계의 團結을

라나(Tarana) 정부는 코소보의 獨立問題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심화되는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Milosevic)의 中央集權의 政策은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받았던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자치권을 威脅하였고, 마침내 코소보에 대한 모든 自治權을 폐지하였다. 이에 밀로세비치는 반대하는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응한 알바니아인들은 세르비아에 대한 테러로써 자신들의 意志를 표출하게되었다. 이 두 民族間에 나토가 개입하게된 동기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에 대한 세르비아의 무자비한 '인종청소'를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평화적 노력이 실패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O. N. Mehrotra, "The Kosovo Crisis : rception and Problem", *Strategic Analysis. Monthly Journal of IDSA*, Vol. 22, No. 7(October 1998)을 참고할 것.

92) 서방 7개국 및 러시아의 합의로 마련한 코소보 평화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① 유고 연방군 철수, ② 공급 중단, ③ 국제 보안군 주둔, ④ 코소보 해방군 처리, ⑤ 임시 행정기구 설립, ⑥ 난민 귀환, ⑦ 국제 기구 활동, ⑧ 전법재판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圖謀하는 한편, 적절하게 러시아와 中國의 힘을 끌어들이려 했다. 특히 밀로세비치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면서 세르비아인들의 유고내 影響力 擴大에 重點을 두었다. 對內的으로는 세르비아인들의 忠誠心을 誘導했으며, 強大國의 힘의 論理에 의한 弱小國의 無氣力함을 強力하게 浮刻시켜 세계인들의 反戰與論을 확산하는데 重點을 두었다.⁹³⁾

코소보전에서 활용되었던 心理戰의 論調는 과거의 비방, 증상모략, 유언비어 날조 등과 같은 事實 歪曲의 심리전 틀에서 벗어나 現代의 意味의 心理戰으로 事實에 입각하여 聽取對象者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誘導하였다. 특히 Cyber전 성격의 인터넷망 活用으로 心理戰 手段을 最尖端化 하였다.⁹⁴⁾

雙方の 心理戰 重點方向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토측은 유고에 대하여 必敗意識을 부여하고 指導部와 住民을 이간시켜 國際社會에 유고옹정의 當爲性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였다.

반면에 유고는 나토측에 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미국과 나토국가의 유고공습 名分을 稀釋시키고 參戰國家 내부의 반전여론을 擴散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인터넷 활용과 같은 심리전 매체의 혁신적 발전이 있었다. 나토가 활용했던 심리전 자산은 보스니아에서 平和維持軍으로 활동하던 美 第4心理戰團 소속의 1개 大隊가 투입되었고, 코만도솔로가 투입되어 라디오 방송을 수행했으며, 기간 중 수 천만 매의 傳單이 撒布되었다.

心理戰 主題는 유고가 공습을 받는 이유, 나토의 攻襲中斷 條件 등 指導部와 住民을 분리시키는 소재와 코소보의 慘狀 등을 강조하여 나토군 進駐의 必要性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코소보전의 심리전을 評價해 보면 나토의 心理戰은 初期에 特別한 效果를 보지 못했다. 초기에 유고의 放送網을 전혀 無力化시키지 못했다. 1999년 4월 20일 이후 나토의 유고 放送局 攻襲을 기점으로 코만도솔로의 威力를 發揮하게 되었다. 또한 ABC, BBC 및

93) 최영원·정찬지, 「최근 美國의 心理戰略」, 1998, pp. 12~13.

94) 沈珍婁, 앞의 책, p. 66.

국제위성을 통한 텔레비전 放送과 인터넷 등이 戰爭 後半期부터 효과를 발휘하였다.

유고는 심리전 장비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戰爭初期에 放送施設의 保存으로 나토측의 일방적 心理戰 遂行을 저지시켰고, 러시아소리 방송(VOR)을 적극 활용하여 國際社會의 反戰輿論과 나토의 參戰 名分을 희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나토의 공습개시와 더불어 反政府 性向의 言論社를 廢刊시키고, 유고 주재 서방측 報道陣의 戰況報道를 遮斷하였다. 특히 戰爭初期에 유고의 해커에 의한 나토측 인터넷 被襲으로 일시적 混亂을 誘發시키는 등 사이버전을 遂行하기도 하였다.⁹⁵⁾

4. 時代別 心理戰 特徵과 敎訓

(1) 古代의 心理戰

古代의 心理戰은 戰爭主體者의 개인적 經驗을 토대로 한 戰鬥方法의 하나로 傳統의이고 瞬間의인 知慧나 自然의 現象을 이용한 心理戰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行爲는 위대한 指導者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經驗的인 第6感에 의하여 소수의 戰略 戰術家의 제안으로 수행된 것이다. 따라서 고대에는 本能的이고 直感的인 심리전의 黎明時代라고 特徵지을 수 있다.⁹⁶⁾

古代 戰爭史에서 수행된 心理戰을 分析해 보면 우선 심리전의 대상은 敵을 欺瞞하고, 戰意喪失 및 誘因을 목적으로 한 對敵 心理戰과 我軍의 허점을 보완하거나 강화시킬 目的으로 실시한 對我軍 心理戰을 실시하였다. 心理戰 手段으로는 햇불, 木馬, 피리, 연, 배수진 등 단순한 수단을 통해 인

95) 최영원·정찬지, 앞의 책, p. 59.

96) 岩島久夫, 앞의 책, pp. 44~45.

간의 視覺, 聽覺, 단순 구조물, 心理物 등 인간의 原初的 感情을 자극하여 戰爭 目的을 달성하였다. 심리전을 수행한 목적은 대부분 전쟁의 勝利를 目標로 적을 欺瞞하거나 적의 戰意喪失 또는 아군의 虛點 補完 및 弱點을 보완하는데 主眼點을 둔 인간의 原初的 慾求를 자극시키거나 충족시켜 적의 戰意상실, 欺瞞, 誘因, 混亂시키는 심리작전을 전개하였다.

運營 면에서 보면, 심리전 수행은 단 1회만 실시하여 戰術的 目標를 달성하는 心理戰이 수행되었다.⁹⁷⁾ 다음은 古代의 본능적이고 직감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수행된 심리전에 대한 교훈을 도출해 보자. 紀元前 400년의 孫子兵法은 現代의 意義를 가지는 心理戰略의 형틀을 제시했다. 兵法 제7편 軍爭編에서 보면, 敵 또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소기의 目的을 達成한다는 心理戰略을 제시하고 있다.

제13편 用間編의 '迂直之計'라는 心理戰略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① 集團心理를 잘 利用 하라. ② 作戰은 敵의 氣勢가 약할 때 虛點을 쳐라. ③ 攪亂作戰의 原理를 利用하라. 이 말은 오늘날 總和團結을 중시하라는 意味다. ④ 對敵 先占에 대한 要諦를 밝혔다. ⑤ 정세에 따라 戰略戰術을 잘 변화시켜 대처하라. 즉, 我軍이 願하는 方向으로 변화를 誘導하라.

이상과 같은 孫子の 兵法은 대부분 현대 심리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心理戰略의 要諦를 밝혔다는 점에서 卓越한 心理戰略家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戰爭史에 나타난 心理戰의 敎訓을 要約해 보면, 유리시스 장군의 트로이 木馬心理戰은 하나의 傳說로 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에 着眼하여 적의 虛點을 노린 유리시스軍의 心理戰 勝利에 意義가 있다고 본다.

한니발 將軍의 대내 심리전에 대한 당시 成功한 要因을 살펴보면, 면밀한 情報活動과 부하 및 被 支配民들의 심리를 尊重했고, 指導者로서의 魅力을 갖고 있다는 것은 先天的으로 心理戰의인 人物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부하와 被 支配民들에게 관심을 쏟고, 戰場에서는 용감하고 과감한 決

97) 안희준, 앞의 책, p. 76.

斷力の 소유자로 戰術的 柔軟性を 중시하면서 戰爭目標을 단순히 軍事的 勝利에 두지 않고 政治的 效果達成에 두었다는 것은 오늘날 指揮官들에게 對內心理戰의 重要性을 敎訓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로마 都市同盟을 瓦解시키기 위한 宣傳手段으로서 그는 로마의 同盟者를 解放시킨다는 名目으로 捕虜들로부터 賠償金도 받지 않고 釋放하고 歸家시켜, 한니발의 敵은 이탈리아 도시가 아니며, 로마의 爲政者라는 것과, 오직 로마가 한니발의 세상으로 變革되면 그들의 옛 領土와 獨立을 回復시켜 준다는 말을 전파시켰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都市同盟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큰 誤算으로 심리전이 실패하였으나 한니발이 遂行한 心理戰略만큼은 현대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價値가 있다고 判斷된다.

다음은 韓信의 피리심리전으로 人間의 心理를 가장 잘 破해쳐서 戰場 心理戰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신은 피리심리전으로 초나라 병사들에게 鄉愁心을 조장함으로써 戰線維持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심리전의 수행매체(피리)와 방법(가수)과 시기(가을, 야간, 포위상황)가 적절하여 효과를 極大化하였다. 이것은 인간과 戰爭心理를 잘 활용한 心理戰의 素材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金庾信 將軍의 연 心理戰은 心理戰 過程에서 보면, 最初의 政治防禦 心理戰으로 평가받을 만하며 心理戰 主體者들은 항상 知慧를 모아 創意的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야 된다는 敎訓을 提示했다고 볼 수 있다.

(2) 中世 및 近代 心理戰

中世戰爭에 있어서 심리전의 特徵은 政治 心理戰的인 요소가 主從을 이루고 있으며, 전쟁의 勝敗를 決定짓는 요인으로 戰場의 병사들로 하여금 戰爭意志를 말살시키는 戰術的 目的의 心理戰이었다. 이 시기의 心理戰은 古代 心理戰에서 나타난 原初의 要求를 충족시키는 單純 心理戰이었다. 이처럼 古代나 中世에 나타난 심리전의 一般的 特徵은 純熟한 바와 같이 本

能的이며 直感的인데 비해서 近代의 심리전의 일반적 特徵은 意識的 또는 計劃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고대의 심리전은 統率者의 先天的인 能力이나 素質에 의존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近代의 心理戰에 있어서는 指導者 個人의 素質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存亡을 전제로 가일층 組織的으로, 또는 計劃的으로 심리전이 수행되었으며, 심리전 대상은 小集團에서 大集團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심리전이 應用되는 心理戰略은 고대에 있어서는 靈的 또는 非論理的인데 비해서 近代에 와서는 보다 論理的이다. 또한 고대에 있어서는 斷片的 散發的이었는데 비해서 近代에 와서는 확실히 綜合的 抑止的인 傾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戰史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具體的인 敎訓을 導出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中世의 심리전에 있어서 대표적인 戰爭史로 칭기즈칸의 恐怖心理戰을 들 수 있다. 몽골軍이 제한된 兵力으로 歷史上 가장 광범위한 地域을 征服한 것은 그들의 강인한 戰鬪力, 신속한 機動力, 情報의 효과적인 蒐集과 活用 등을 들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要因은 많은 침자를 意識的·計劃的으로 이용하여 敵을 恐怖에 빠뜨리는 戰略的인 心理戰을 탁월하게 수행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宣撫 心理戰에 대한 重要性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被 征服民族들로부터 眞實된 忠誠心을 받아내지 못함에 따라 民族이 分裂되어 1世紀를 지탱하지 못하고 滅亡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強力한 國家라도 國民을 團結시키지 못하여 分열되면 쉽게 敗亡할 수 있다는 眞理를 敎訓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나폴레옹은 '戰略'이란 시간과 장소를 사용하는 學問이라고 한마디로 表現하고, 여기에 人間 心理를 파악하여 利用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그는 고대 指導者型的 戰略概念에 추가하여 근대적인 計劃的·組織的인 戰略의 소유자이며, 근대 戰略心理戰의 초석을 마련한 指導者였다. 특히 그는 戰爭 成功의 3/4은 精神的 要素로 결정되며 物質的 상황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휘하 장병들의 精神을 깊이 파악하

여 心理戰術로 뭉치게 함으로써 戰爭에서 勝利를 거두었다. 이는 오늘날 軍指揮官들이 본받아야할 精神武裝을 강조한 것이며, 전장에서의 戰略的 心理戰을 計劃性 있게 수행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비스마르크가 獨逸統一事業을 성공시켜 대 獨逸帝國을 建設한 것은 軍事力을 배경으로 한 外交上의 승리를 國民感情과 잘 結合시킨 결과이며, 이러한 그의 외교 心理戰略은 전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作品이었다. 이처럼 近代時代의 戰史에서 가장 탁월한 外交心理戰略을 수행한 비스마르크 수상은 安保와 外交를 組織的·計劃的인 心理戰略으로 결합하여 統一獨逸은 물론 보불전쟁 후에는 독일의 安全保障 확보를 根本理念으로 새로운 國家政策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이와 같은 外交·安保의 心理戰略은 現代 外交戰의 바이블로 오늘날 政治, 軍事 指導者들이 큰 敎訓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現代의 心理戰

1) 現代 心理戰의 一般的 特徵

第1次 世界大戰 以後부터 第2次 世界大戰까지의 心理戰 特徵은 近代 心理戰을 한 次元 발전시켜 組織的·綜合的·心理戰時代로 大衆心理의 操縱을 組織的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첫째로 國家라는 組織機關의 주관하에 팀 워크에 의해서 心理活動을 遂行하는 점이며, 둘째는 심리전의 對象 또는 目標을 國民大衆에 두고 있다. 近代까지는 國家 즉, 立法 司法, 行政府(君主, 大臣, 議會, 軍隊)가 目標였으나 現代 心理戰에 있어서는 大衆을 目標로 하여 國家組織의 支配者인 大衆에 대한 영향력을 중시한다. 예컨대 政治家가 아니라 彷徨하고 있는 國民大衆의 마음을 파악하여 움직이게 하는데 主力한다.

이와 같이 被 統治階級을 主 目標로 삼아 行動하며 그러기 위한 組織的

인 活動을 전개하는 것이 現代 心理戰의 特徵이다.⁹⁸⁾ 第1次 世界大戰을 계기로 心理戰은 重要的 武器로 變貌하게 되었고, 전쟁 對象國이 대량의 通信機가 文化活動의 수단이 되면서 宣傳 心理戰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된다. 이 宣傳 心理戰은 매스미디어 發達에 따라 心理戰 主體가 國家機關 또는 軍指揮官으로 轉換됨으로써 國家 戰略的 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第2次 世界大戰 이후의 心理戰은 綜合的·抑止的 心理戰時代로 發展하게 된다. 現代 心理戰에 있어 그 特徵의 하나인 綜合性은 科學性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늘날의 심리전은 分野別로 細分化되고 統一된 機構가 專門的인 技術과 莫大한 專門人力 및 豫算을 가지고 運營되고 있다. 현재 美國, 러시아 및 中國이 보유하고 있는 心理戰 組織은 第2次 世界大戰時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巨大한 組織이 가진 綜合性과 科學性이 바로 現代 心理戰의 特徵의 일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綜合性은 비단 組織面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心理戰에 관계되는 諸 分野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心理戰이란 용어 자체가 不適當 할만큼 政治·外交·軍事·經濟·教育·藝術·스포츠·科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언제나 心理戰的인 配慮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한편 科學性은 심리전이 과학과 관계되는 諸 分野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情報과 分析의 過程에서 社會科學的 方法이 應用되고 있으며, 매스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스컴의 技術이 이용되고 있다. 第1次 世界大戰 이후부터 心理戰의 媒介體로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이 활용되어 왔으나 1980년대 초부터는 뉴미디어의 등장에 이어 199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디지털미디어가 心理戰의 主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⁹⁹⁾ 따

98) 高準鳳, 앞의 책, p. 42.

99) 뉴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概念에 대한 差異點은, 뉴미디어(New Media)라는 用語는 1980년대 초반에, 디지털미디어(Digital Media)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미디어 개념이다. 뉴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에 새로운 컴퓨터 및 通信技術을 結合시킴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情報蒐集 처리와 가공, 電送, 分配과 利用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다. 이에 비해 디지털미디어는 映像, 音聲, 데이터 등 情報의 서로 다른 感覺의 類型을 디지털 信

라서 심리전의 科學性이 發達되면 될수록 그 수준이 高度化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特徵이 抑止性(deterrence)이다. 抑止性은 특히 미·소간의 核 問題 分野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具體的인 事例가 1962년 10월의 쿠바위기 사건이다.¹⁰⁰⁾ 이 事件은 軍事·外交·政治的인 면에서 관여되어 있지만 心理的인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核 時代의 미·소의 對抗 心理戰面에서 抑止性이 잘 나타나고 있다.¹⁰¹⁾ 이러한 특징을 갖고있는 現代 心理戰은 전쟁의 수단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武器의 破壞力과 運送手段의 發達로 전쟁이 空間的 限界와 時間的 한계를 克服하게 되었다. 電子武器와 뉴미디어의 登場으로 전쟁이 時間的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전 지구촌을 동시 戰場化하는 形態로 발전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심리전도 戰場의 空間的, 時間的 限界에서 벗어나 동시 戰場化하기에 이르렀다. 매스미디어가 現代戰의 중요한 核心手段으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¹⁰²⁾

최근의 현대전에서 뉴미디어時代의 가장 成功的인 心理戰을 수행한 걸프전을 하이테크전 및 心理戰, 多國籍軍은 武器의 戰爭(A War of Weaponry), 사담 후세인은 神經戰(A War of Nerve)을 수행했다고 한다. 따라서, 心理戰의 主要 手段인 戰時 宣傳活動이 從來에는 數 週 혹은 數個月에 걸쳐 遂行되었다면 걸프전에서는 分단위로 수행되었다. 이는 尖端 技術革命에 따른 뉴미디어의 적절한 活用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요컨대, 現代戰에서는 다양

號라는 단일한 信號處理 方式에 따라 統合的으로 처리하고 電送하는 미디어로, 디지털망을 통해 네트워크(Network)로 연결됨으로써 미디어 시스템에 연결된 사람들이 다양한 情報을 流通할 수 있는 것이 特徵이다(金永錫, 「디지털미디어와 社會」, 서울: 나남출판사, 2000. 9. 25. pp. 37~43).

100) 쿠바위기 事件은 蘇聯의 후르시초프 首相이 쿠바에 戰略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심하면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서 戰略미사일과 爆擊機를 철수토록 명령하고, 不應할 경우 對蘇戰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최후 통첩에 후르시초프 首相이 일체의 武器를 撤收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終結된 사건이다.

101) 高準鳳, 앞의 책, pp. 68~71.

102) 안희준, 앞의 책, p. 10.

하고 尖端化된 미디어에 適合한 새로운 형태의 심리전이 또 다른 特徵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樣相으로 發展해 가고 있는 現代戰에서의 心理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敎訓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第1·2次 世界大戰의 敎訓

第1次 世界大戰時는 科學技術의 發達로 戰爭樣相이 급변하면서 心理戰 主體가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科學化되고 專門化되었으며, 大衆을 目標로 組織的·綜合的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戰爭 對象國들은 戰時 心理戰 專擔機關을 창설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영국은 戰時 宣傳局을 설치하여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獨逸을 孤立시키는 對外心理戰을 수행하였다. 특히 당시 美國의 情報省長官 산하에 노스클리프 하우스(North-Cliff's House)라고 불리우는 戰時 宣傳本부의 創設로 心理戰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

노스클리프 卿은 대적 심리활동을 종합지휘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선전심리전을 최초로 具體化하고 새로운 次元으로 格上시킨 人物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퍼싱 장군은 戰場 心理를 실험을 통하여 科學的으로 分析한 후 戰意 分析表를 창안하였다. 이를 근거로 降服傳單을 제작하여 독일군 진영에 살포함으로써 수많은 독일 병사들을 항복시킨 최초의 將軍이다. 이는 戰場心理戰의 創意的이고 科學的인 필요성을 제시한 사례로써 심리전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교훈을 제시했다고 본다. 第2次 世界大戰時의 심리전은 第1次 世界大戰에 비해 보다 戰略的이고 長期的인 目的下에 理性的이고 事實的인 바탕 위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心理戰 機構와 專門要員, 豫算 등이 第1次 世界大戰에 비해 比較할 수 없을 만큼 擴大되어 體系的이고 組織的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의 名將 아이젠하워 將軍은 戰爭의 恐怖症으로 이하여 士氣가 극도로 저하된 장병들의 戰意를 高揚하기 위해 戰線部隊를 直接 訪問하여 격려함으로써 指揮官의 絶對的 信賴와 戰意를 高揚시켜 전승을 거둔 사실은 戰

意를 高揚하는 對內心理戰의 重要性을 일깨워준 敎訓이다.

영국의 몽고메리 將軍은 獨逸軍에 대한 恐怖感으로 逃亡病에 걸린 부하들을 다양한 方法을 통해 動機를 誘發시켜 적군에 대한 恐怖心과 逃亡病을 치유함으로써 신비한 奇蹟을 創出한 것이다. 이는 戰場의 指揮官은 미래를 내다보는 知慧를 發揮함으로써 對內心理戰의 成功이 곧 戰爭의 勝利라는 등식을 證明했다고 본다. 히틀러는 宣傳心理戰을 나치즘으로 體系化하여 한 차원 높게 구사한 인물이었다. 히틀러의 宣傳心理戰에 대한 指導原理는 對內的으로 獨逸統一의 絶對的 不敗性을 과시하고 對外的으로는 敵國의 불통일과 혼란을 惹起시키는데 두었다. 그는 對內 宣傳心理戰에 있어서 宣傳媒體를 적절히 演出하여 大衆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目的을 위해 사실을 誇張하거나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나치스전선을 추진하였다. 對外心理戰은 철저히 分裂, 離間, 不和, 混亂시키는데 두고 相互間의 不信을 조장케 하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大衆心理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고, 막강한 國家組織의 힘에 의해 宣傳心理戰을 수행하여 短期的으로는 成功하였으나 長期的으로는 치명적인 結果를 초래했다. 또한 宣傳第一主義가 逆으로 相對 敵國에게 探知되어 결국 逆 宣傳에 利用당함으로써 敗北를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히틀러의 宣傳心理戰은 人間의 本性을 심층 깊게 연구하여 사실에 입각한 眞實한 내용으로 수행해야함을 敎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防禦의 心理戰의 重要性和 國力의 實體를 통찰하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을 감행했다는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證明한 사례이다.

3) 6·25戰爭의 特徵과 敎訓

現代戰의 特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25戰爭의 心理戰도 第2次 世界大戰에서 사용된 心理戰의 延長線上이면서 동시에 冷戰時代의 心理戰 現象을 예고하는 過渡期의인 特徵을 갖고 있다. 예컨대 유엔군은 第2次 世界大戰時의 心理戰 敎理를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共產陣營은 새로운 매스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였다. 6·25전쟁 중에 UN군측의 심리전 활동은 초기에 非

組織的인 운영으로 攻擊的 心理戰 보다 防禦的 心理戰에 의한 유언비어와 恐怖現象을 예방하는데 奇效할 수밖에 없었다.¹⁰³⁾ 本格的인 活動은 仁川上陸作戰이 성공하면서 心理戰 組織이 완성되고 體系的인 心理戰 活動이 수행되었다. 6·25전쟁에서 심리전을 主導한 主務部署는 G-2心理戰課이며, 특별히 6·25전쟁을 위하여 創設된 심리전 課가 1950년 6월에 成立되어 1953년까지 美8軍 極東司令部에 그 職務를 承接할 때까지 存在하면서 傳單生産, 移動라디오放送, 확성기 등을 이용한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共產陣營의 心理戰은 모든 共產黨 組織과 政策들이 心理戰과 妥協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特徵은 이미 여러 共產國家의 社會主義 革命과 나치의 宣傳戰略을 통하여 體系化된 것인데, 北韓側의 宣傳組織은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일부 變改되었던 것이다.¹⁰⁴⁾ 또한 모든 宣傳活動은 언제나 長期的인 目的에 맞게 運用되었으며, 短期的인 大衆性(popularity)을 위해 長期的인 目的이 變改된 경우는 없었다. 이는 北韓측의 심리전이 短期的 目的보다는 長期的인 目的에 의해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心理戰은 단순한 主題가 지속적으로 反復되고 다양한 宣傳技法들이 하나의 主題에 集中되는 것이 特徵이다. 이와 같은 特徵을 바탕으로 수행된 6·25전쟁에 대한 敎訓을 도출해 보자.

6·25전쟁의 心理戰은 純熟한 바와 같이 共產黨의 戰略戰術을 이해하지 못하여 妥協측 主導로 遂行하지는 못했지만, 共產黨의 心理戰 意圖를 간파하고 戰術의 敎訓과 소중한 經驗을 얻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⁵⁾

첫째, 完전하고 迅速한 報道心理戰은 勝利의 要素였다. 6·25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報道心理戰은 이와 같은 信條를 敎訓으로 제시하고 있다.

103) Rolf Jacoby, "USIE Korea-An Experiment in Wartime Operation", in William Daugherty and Morris Janowitz(eds.), A Psychological Warfare(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4), pp. 225~227.

104) William Daugherty and Morris Janowitz(eds.), A Psychological Warfare(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4), pp. 828~829.

105) 趙永甲, 앞의 책, pp. 413~417.

이러한 신조는 言論의 自由가 原則으로 되어있는 民主主義 국가에서는 언제나 고수되어야하며, 심리전에 있어서는 하나의 重要的 原則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둘째, 精神武裝을 強化시키는 것이 勝利의 捷徑이 된다는 점이다. 科學이 제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무기를 操作, 運用하는 것은 역시 인간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군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精神武裝은 國家興亡에 決定的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싸워 이겨야 살 수 있다는 精神이 결여되는 곳에서는 항상 패배만이 있을 뿐인 것이다. 셋째, 사전의 豫備知識은 新武器보다도 아군을 우세하게 만들어 준다. 孫子도 그의 兵法에서 不知敵이면 不知計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투에 앞서서 적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언제나 我側에게 많은 이점을 주게 된다. 넷째, 흑색·회색·백색선전 가운데 역시 심리전의 왕좌를 차지하는 것은 백색선전임을 재인식하였다. 사실 그대로의 宣傳으로서 眞實한 宣傳心理戰은 적에게 감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計劃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식이다. 다섯째, 自由와 民主主義의 理念은 적에게 心理攻勢를 취함에 있어 絶對的인 價値를 가진 것이었다. 宣傳이 아무리 우수할 지라도 虛偽가 밝혀지면 오히려 逆 效果가 증폭되는 것이다. 따라서 劃一化된 輿論, 中央集權化된 선전 및 秘密主義는 마침내 그 집단에 시달렸던 民衆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말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아군의 심리전에 커다란 교훈을 남겨준 것이기도 하였다. 여섯째, 심리전은 活潑한 獨創力 위에서만 성과 있게 전개될 수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社會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人間의 心理를 포착하여 心理戰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獨創的인 努力과 手段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그것을 勝利의 方向으로 이끌어 가려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目的을 성취시킬 수 없는 것이다. 現代戰爭은 軍事力을 동원한 武力戰爭을 비롯하여 政治戰爭, 經濟戰爭, 文化戰爭 등으로 매우 다양한 方法과 手段으로 自國의 利益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心理戰略을 國家的 政策과 戰略을 달성하는데 있어 하나의 重要的 手段으로 發展시켜 나가야 하겠다.

4) 最近 現代 心理戰의 敎訓

現代戰에서도 가장 최근의 戰爭인 베트남전, 걸프전, 코소보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자. 베트남전은 사상 초유의 TV전쟁으로 매스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心理戰 樣相에 따른 課題를 제시한 戰爭이었다.

당시 美國側에서 보면 새로운 미디어매체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戰場狀況이 動寫眞으로 즉시 안방으로 전달됨에 따른 輿論形成 效果를 간과한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宣撫 心理戰의 실패를 들 수 있다. 반면에 越盟政府는 미국의 自由言論制度를 교묘하게 이용하였고, 共產主義 革命目標을 大衆敎育과 心理戰 遂行의 根幹으로 삼아 國家次元에서 社會價值觀과 傳統을 擴散시키는데 主力함으로써 成功의인 心理戰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전에서의 심리전은 政府次元에서 報道와 統合運營해야 하며, 적절한 統制對策이 要望된다 하겠다. 또한 中世紀에 칭기즈칸이 被 征服民에 대한 宣撫心理戰의 실패로 早期에 敗亡한 것과 마찬가지로 美國은 베트남민들의 마음을 主體側이 원하는 방향으로 誘導하지 못한 것이 敗北의 原因임을 認識하여 戰爭 對象國에 대한 宣撫心理戰의 深層的인 研究와 對策이 講究되어야 하겠다.

걸프전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대한 철저한 反省과 批判을 통해 軍과 言論의 환상적인 調和로 성공적인 報道心理戰이 수행된 것이다. 걸프전은 뉴미디어가 總出動한 최초의 보도심리전으로 國民의 意志와 輿論의 戰爭이었으며, 美國이 主體가 되어 心理戰과 報道를 統合하여 運營함으로써 心理戰을 한 차원 높게 수행한 점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요인을 요약해 보면 현대전에서 報道心理戰의 중요성을 認識한 미국이 지난 戰爭의 敎訓을 거울삼아 體系的이고 組織的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開戰 初期부터 世界輿論과 自國民의 支持獲得 등 확실한 目標下에 體系的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였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虛偽情報 및 逆 情報의 流出, 言論의 統制 등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또한 걸프전에서의 心理戰은 철저하게 뉴미디어를 中心으로 수행하였으

며, 軍과 言論의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統制된 情報提供, Pool제 運營, 이미지 조작 등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國家의 利益과 言論의 利益이 一致되는 方向으로 誘導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戰時에 있어서 言論媒體를 利用한 心理戰이 얼마나 중요한 점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戰爭인 코소보전에 대하여 살펴보자. 코소보전에서는 古代로부터 걸프전까지 망라된 모든 手段이 動員된 새로운 形態의 心理戰이 遂行되었으며, 특히 디지털시대의 총아인 Cyber전 性格의 인터넷戰으로까지 發展하였다. 최근의 戰爭事例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敎訓과 課題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 活用과 같은 心理戰 媒體의 革新的 發展樣相을 가져왔다. 나토군은 戰爭初期 유고의 放送網을 전혀 無力化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유고의 해커에 의해 나토측의 인터넷망이 被襲을 받아 混亂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미디어時代에 있어서 心理戰 手段인 각종 媒體를 效果的으로 管理하고 戰時에 敵의 攻擊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能力과 敵國에 대한 心理戰 電波를 파괴,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심리전 메시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면 6·25전쟁 이전에는 欺瞞과 歪曲에 의한 虛偽心理戰이 實戰에 利用되었으나 現代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立證되었다. 媒體의 革新的 發達은 코소보전에서 수행된 바와 같이 戰爭狀況을 現場中繼 하는가 하면 사이버전 성격의 인터넷망을 活用한 最尖端 心理戰이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現代戰에서는 眞實을 바탕으로 心理戰 메시지가 傳達되어야 한다는 眞理를 證明한 것이다.

5. 結 論

이상과 같이 心理戰은 古代의 戰爭에서부터 現代戰까지 인간의 마음을 主體者가 원하는 방향으로 誘導하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다양한 形態로 수행되어 온 것이다. 心理戰의 發展過程을 요약해 보면, 고대에는 主體者가 개인적 經驗을 토대로 한 戰鬪方法의 하나로 傳統的이고 瞬間的인 知慧나 自然의 現象을 이용한 心理戰이 수행되었으나 중세 및 근대에 이르러서는 主體者의 意圖에 따라 宣撫心理戰, 戰略心理戰, 外交心理戰을 意識的이고 計劃的으로 수행되었다.

心理戰은 第1次 世界大戰을 계기로 主體가 國家組織으로 전환되면서 國民大衆을 목표로 宣傳心理戰이 큰 役割을 하게 된다. 이후 心理戰의 重要性을 認識한 第1次 世界大戰 對象國들은 심리전에 대한 심층적인 研究에 着手하게 된다. 心理戰이란 用語도 第1次 世界大戰의 敎訓을 分析하는 過程에서 최초로 使用하게 되었고, 이시기에 心理戰의 理論的인 土臺가 구축됨으로써 第2次 世界大戰부터는 綜合性·科學性·抑止性의 心理戰時代로 革新的인 發展을 가져왔다.

가장 최근의 戰爭인 걸프전과 코소보전은 衛星工學 技術의 最尖端化로 戰場狀況을 실시간에 TV로 生中繼하고 인터넷을 活用한 사이버전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革新的인 心理戰의 發展樣相은 그 동안의 오랜 人類 歷史속에서 文明의 發達速度와 더불어 變化하고 發展 해온 것이 사실이다. 옛말에 “古爲今用”이란 말이 있다. 옛것을 오늘날에 맞게 知慧롭게 適用하라는 意味다. 따라서 지금까지 戰史에 나타난 心理戰의 戰術運用 實態를 고찰하고, 時代別 特徵에 대한 심층 깊은 分析을 통하여 소중한 敎訓을 얻었다. 이를 국가와 우리軍의 心理戰에 지혜롭게 適用함과 아울러 未來戰의 對應策 마련에 寄與하기 위하여 核心的인 敎훈을 토대로 發展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心理戰의 共通된 性格은 인명을 殺傷하는 戰爭이 아니며, 人間の 마음을 主體가 意圖하는 方向으로 變化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心理變化는 虛僞와 欺瞞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되며 반드시 眞實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戰爭은 類型的 要素보다 無形的인 要素에 의해 勝敗가 決定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歷史的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戰爭主體는 휘하장병의 戰意高揚, 精神武裝, 指揮官의 信賴度 등 對內心理戰이 先行되어 成功했을 때 全勝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戰場心理를 實驗을 통한 科學的이고 創意的인 研究結果에 根據하여 實戰에 適用해야 한다. 第1次 世界大戰時 퍼싱 將軍의 實驗을 통한 降服傳單 製作과 6·25戰爭시 UN군의 創意的인 懸賞金傳單에 의한 MIG기 歸順事例은 이를 實證하고 있다.

넷째, 現代戰의 心理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시대의 총아인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心理戰 技法이 國防戰略 次元에서 開發되어야 한다. 최근 現代戰은 모든 정보를 指揮統制體制에 의해 이를 精密武器 등의 打擊體系로 연계되는 情報戰 및 體制統合戰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心理戰의 주요 手段인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報道心理戰 활동이 分또는 秒單位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媒體의 活用に 대한 專門的이고 體系的인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現代戰에서의 心理戰은 最尖端 媒體와 指揮通信 機能을 먼저 掌握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우리의 心理戰 手段인 電波媒體를 效果的으로 管理하고, 戰時에 敵의 攻擊으로부터 保護할 수 있는 能力과 敵國의 心理戰 電波를 교란할 수 있는 완벽한 對應策을 갖추어야 한다. 最近의 戰爭을 통해 實證된 바와 같이 現代戰의 心理戰은 眞實을 바탕으로 總體的 힘의 優位가 戰爭의 勝敗를 決定하는 狀況에서 초기에 첨단미디어와 指揮通信 機能을 누가 먼저 掌握하느냐에 따라 心理戰의 勝패가 결정되고 이는 곧 戰爭의 勝敗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오늘날 戰爭은 단순한 軍事力의 衝突에 의한 戰爭에서 軍事力 이외의 요소에 의해 펼쳐지는 戰爭形態로 변모할 것이다. 요컨대 政治戰, 經濟戰, 思想戰, 心理戰 등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그것이다. 따라서 과거 武力手段에 의한 전쟁에서는 심리전이 戰爭의 補助手段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현대전의 戰爭樣相은 報道心理戰의 役割을 전쟁의 補助手段에서 主手段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心理戰에 대한 既存의 概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政府次元의 戰略心理戰에 대한 對備策이 요구되며, 우리 '軍도 戰·平時 國防戰略的 次元에서 구체적인 對應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現代 心理戰은 政府次元에서 軍과 言論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體系를 構築하여 組織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現代戰의 心理戰은 디지털미디어 中心으로 수행될 것이므로 유사시 心理戰 媒體를 적절하게 統制하고 應用할 수 있는 시스템을 構築해야 하며, 미래 한반도의 戰場環境에 대한 深層分析으로 心理戰의 새로운 國家 戰略目標과 政策方向을 具體적으로 設定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